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AUG 14 1981

The Korea Times Toronto

(일간) No. 573 1981년7월23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Thursday, July 23. 1981

토론토에 한국경관 주재

뉴욕등 교포인구 1만이상시 파견

해외도피자등 수사협조·정보수집

한국정부는 토론토에 경찰관을 파견, 상주시킨다. 연합통신이 23일 보도한 내무부 발표에 의하면 정부는 교민 1만명 이상이 있는 곳에 한국국적자의 보호를 위해 경찰관을 상주시킨다는 원칙을 세우고 1차로 토론토, 로스엔젤레스, 뉴욕, 상파울로(브라질)의 4개도시를 선정했다. 약 10만명의 한국인부가 있는 사우디에도 간부급 경찰관이 파견된다. 지금까지 한국경찰은 일본의 도꾜, 오사까, 후꾸오까와 파리, 홍콩에 파견 근무했었다.

경찰관들은 해외도주하는 국내범죄자 체포및 본국송환등 문제를 주재국정부와협력하는 역할도 맡는다.

한편 토론토총영사관은 본국서 아무 통보를 받지 못했으나 "파견되는 경찰관은 한국국적자의 범죄발생에 대비, 정보수집과 주재국과의 수사협조등 임무를 맡을 것이며, 이들은외교관 여권을 소지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파견된 경찰관은 범죄가 발생한 경우라도 수사에 직접 나서는 일은 없다. 인구 3만의 토론토가 인구 7~8만명의 시카고및 샌프란시스코, 워싱톤에 앞서 1차 파견대상지로 선정된 것은 특이하다.

서방7국정상회담 폐막

경제정책에 이견여전

(오타와)캐나다가 주최국이되어 열린 연례 서방7국 정상회담은 악화하는 세계경제에대한 처방을 산출하지 못한채 21일밤 폐막됐다.

각국수뇌들은 인플레이션과 실업자 문제가 각국이 당면한 최대의 과제라는 점에는 일치했으나 이에대한 대책에 관해서는합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고금리 정책은 각국의 항의를 받았으나 폐막성명서는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리간미국대통령은 가장 승리한 지도자로 부각됐다.

이틀간의 회의중 캐나다및 서독, 프랑스등 유럽국은 미국이 이자율을 낮추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으나 리건은 "인플레와 실업자 구제를 위해 별다른 방도가 없다"고 버텼다.

승자고 패자고간에 8백만달러를들인 이 회담이소리만 요란했지, 무슨성과를 가져 왔는지는 아직 불분명 하다.

섬유미술 합동전

서울 이대생 12명「한국학과」위해

◇김현숙 양

◇차영순 양

◇차영순양의 교선자수화(두 줄기 [illegible] 사이에 두고 용과 호랑이가 [illegible] 으르렁거리고 있다.

토론토대학교한국학과후원재단(이사장 윤여화) 은 올해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서울 이화여대 미술대학생및 출신자들의 섬유미술작품 합동전시회를 주최한다.

오는 8월5일부터 9일까지 토론토대학 국제학생회관 (33 St· George St.) 에서 열리는 이 전시회 에는 12명의 구상, 비구상화 50점, 발 4점, 박공예품13점등 67점이 전시된다.

「섬유미술」로 불리우는 이 자수화들은 색실등을바느질해서 예술품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본을떠서수놓는 과거의 동양자수와다르다.

이들의 자수화는 좀 멀어져서보면 유화나 수채화와 비슷한 색동감을 풍긴다.

섬유미술은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미술분야로, 응용미술이나 실내장식등과는 판이하게 다른 순수미술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주최측은 밝혔다.

토론토대학교 초청으로 토론토 전시회에 출품한이대출신및 재학생들은 모두 이대기독학생회「실로암」(S (Siloam=Sent. 대표 김수혜)회원으로 2년전 동미대생 4명이 성경공부를 시작하다가 점차 인원이 늘자 회로발전, 섬유미술을 통한 그리스도교 선교 목적으로 합동전도 열고, 해외진출도 하고있다.

토론토의 민속무용가 김용순씨의 주선으로 이번합동전을 가지게된 출품자는 김씨의아우 김현숙양을 비롯, 차영순, 김수혜, 이명희, 도혜령, 손경숙, 유경희, 박명정, 유영희, 김옥광, 마인숙, 김인숙양의 12명이다.

이들대표로 토론토에 도착한 김수혜, 김현숙(이대교육대학원생·미술교육 전공), 차영순(이대교육대학원생·동미대 섬유예술과조교)양은 「토론토대학 같은 유명교가 전시초대해 줘서 기쁘다. 우리 그룹은 선교모임이므로 개인기 자랑보다 단체적으로 특수미술을 통한 한국문화 소개와 아울러 선교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의영광위해 노력할 기회를 얻은게 다행이다」고 말했다.

후원재단의 유현승 부회장은 「이번 전시회는 한국과의 후원도금 보다도 한국문화소개에 더 큰 의의가 있다. 우리 재단은 앞으로 기성대가뿐 아니라, 학생작품도 소개하는 다리구실을 할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각분야의 특색있는작품(기법)등 소개에 힘쓰겠다. 이번의 경우, 학생작품이므로 더욱 참신하여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전시회 수익금은 경비를 빼고, 재단기금과 실로암 선교비에 충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전시회의 리셉션은 5일하오 4~8시, 개장시간은 5~7일은 정오부터 밤 9시, 8, 9일은 하오 2~8시이다.

한국학과 후원재단은 작년에 숙명여대 이인실교수 초청 동양화전이건, 한국고전문화재 전시회등을 마련, 모국문화 소개와 재단기금 확보를위해 활기있게 움직여왔다.

社說

역사적 행사가 돼달라

— 전캐나다 한국인체육대회

대한체육회캐나다지부는 유사 이래 최대규모의 전국 한인체육대회를 광복절인 8월15일 토론토에서 거행한다. 이는 이땅 한인이민사상 그 스케일과 종목등에서 기록될만한 맘모스 행사이다.

연전 한인연합회가 마련한 전체 캐나다 한글교육자대회가 알려진 바로는 이 나라 한인사회의 전국규모 첫 행사였으나 이번 체육대회는 예산면과 동원인원등 여러 각도에서 더욱 큰 행사임에 틀림이 없다.

예산면에서 4만5천 달러의 거액을 책정했으며 그날 행사를 크게 둘로 나누어 제1부는 체육대회, 제2부는 16일밤 실시되는 모국 연예인 초청쇼로 복합적 맘모스 행사를 벌인다.

전국체육대회 종목으로는 대표적 경기인 축구 결승전을 비롯하여 단축 마라톤과 어린이들의 각종경기, 학생들의 기마전, 육상경주, 부녀경기, 일반부의 줄다리기 자전거 릴레이등 17개 종목으로 다양하며, 연예인쇼에는 모국의 인기가수 하춘화양, 원로가수 김정구·고운봉·이은관씨, 그리고 코미디언 서영춘씨등이 특별원정한다고 전해졌다.

체육경기 종목중 특히축구경기는 캐나다 전국의 각 지역 대표팀들이 자웅을 겨루는 초유의 전국대회로서 이미 런던, 키치너, 뱅쿠버, 몬트리얼등 지역에서 참가신청이 들어왔다고 주최측은 밝혔다.

우리는 우선 체육회의 이같은 쾌거에 경의와 찬사를 보내며, 허실 없는 알찬 체육대회가 되기를 촉구하는 한편, 이름이 전국대회이니만큼 교민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도시들 모두가 누락 없이 이에 참가하는 행사가 되기를 요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최측의 빈틈 없는 조직력과 강한 설득력 작용이 필수적일 것이다.

말을 바꾸면 대도시 위주의 행사로 그치고 말아 군소도시의 한인사회가 소외감을 안고 장래의 이같은 모임을 고집스럽게 외면하는등의 후유증을 남겨서는 안되며, 명실 아우른 전국대회가 되어 시간에 쫓기고 과중한 업무량에 누질려, 울분이며 스트레스며 정신적 강박관념등에서 헤어날 길 없는 겨레들 이 체육을 통한 해소와 진취정신 배양의 기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건전한 정신은 건전한 육체에 깃든다"는 말대로 굳센 의지와 강철같은 체력을 굳히고 다지는데 있어 스포츠는 최우선 방법임을 이같은 전국체육대회를 계기로 널리 보급·계몽되어야 할 것이다. 운동은 선수만 하는 것이 아니요, 심신 단련을 위해 리크레이션 삼아 평소에 여가 선용으로 하는 습성을 이런 행사를 통해 길러야 하겠다.

전국체전의 의의는 이런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전시효과나 행사치레에 그쳐서는 시간과 정력의 낭비에 불과할 것이다.

또한 경기 진행중에는결코 승부의식의 과잉이나 지역감정이 앞서 불상사가 발생하는 사태는 없어야 하겠으며, 집행진의 엄정하고 사심(私心) 없는 처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필수적이다. 이런 충언을 노파심으로 돌릴지 모르나 과거 우리는 누차 그같은 불미로운 사태를 목격했으며, 경기 중단, 무기연기등의 쓴 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전국규모의 경기에서는 최선과 만전을기해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만 모처럼의 장거가 정당하게 평가를 받을 것이며, 또한 이 대회의 수명이 길어질 것이고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지역과 동원인원수가 부쩍 부쩍 늘 것이다.

한편 각지역·각도시 한인사회는 이같은 전국적 행사를 남의 일로 무관심해지거나 경원하는 일 없이 솔선하여 즐겨 참여하는 열의를 가져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평범한 진리는 서로 흉금을 터놓고 만나는데서 더욱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

모여야 일이 되는 것이다.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같이 웃고, 뛰고, 미래의 푸른 꿈을 길러 나가야 한다.

또 한번 전국체육대회의 수명이 길 것을 축원하며, 모든 교민들은 이에 협조하여 이 행사가 성공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화랑A팀 우승

교민축구대회 8팀참가

한인회주최 제12회 교민 축구대회및 모국체전 파견 선수 선발전에서 화랑A팀은 한맘(천주교회)을 격파, 우승을 차지했다.

19일 센테니얼 확에서한인축구협회(회장 임경진) 주관으로 열린 이 대회에는 청소년부 6개팀, 일반부 2개팀이 참가, 시종 열전을 벌였다.

청소년부 결승에서 화랑A는 정경화선수의 헤드·트릭(1경기에서 3골)을 기록하는 수훈으로 한맘팀을 3:0으로 눌렀다.

청소년부 6개팀은 A·B조로 나누어 예선리그를벌인후 각조2팀씩 나와 준결승전을 펼쳤다. 토너먼트로 벌어진 준결승에서는A조 화랑A와 천주한맘이B조의 성산교회와 이글스를 각각 4:0, 2:1로 물리치고 결승에 올랐다.

한편 친선경기로 진행된 일반부 경기는 시이소전을 거듭한끝에 청솔회가 블루어 번영회를 5:4로눌러 승리를 차지했다.

원래 한인회주최 대회지만 회장단 사표등 분규관계로 한인회 임원진은 대회에 나오지 않았다.

◇청소년부 준결승
화랑A 4:0 성산교회
천주·한맘 2:1 이글스
결 승
화랑A 3:0 천주·한맘
◇일반부 친선경기
청솔회 5:4 블루어번영회
◇개인상
최우수선수상
정경화(화랑A)
공격상
민태일(천주교)
수비상
권종섭(성산교회)
미기상
이두명(천주교회)

위스키대신 소주로

한국 음주경향 바뀌어

(서울22일=연합)지난4년동안 계속 증가된 국산위스키 소비량이 금년들어 하락했다고 한국 국세청이 22일 발표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길벗, 베리나인, 드슈등 국산위스키류가 지난 5개월 동안 1,532kℓ소비되어 작년도의 동기간보다 10·7%의 감소를 보였다.

이 감소현상은 77년 국산양주가 선보인 이래 처음이다. 국산양주 소비량은 해마다 32~311%까지 증가해 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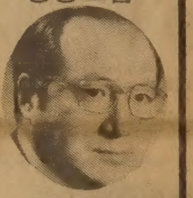
한편 동발표에 의하면소주음주량은 해마다 8% 가량 증가하다가 지난5개월간에는 15·9%나 증가했다. 반면 맥주소비량은 1·9%밖에 늘지않았다.

국세청 관리는 한국음주가들의 취향이 경제불황에 따라 값비싼 양주에서 값싼 소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토론토인쇄인 : 김 형 근
The Korea Times of Toronto (or Hankookilb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Subscription fee $90. per year, $8.00 per Month.
ISSN 0319 2962
구독료 : 연 $90, 월 $8.00
SECOND CLASS MAIL
NP 9184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생명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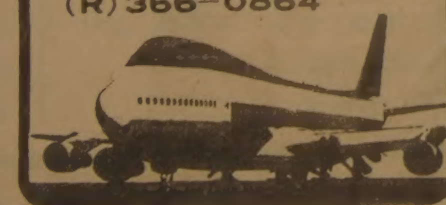
(HENRY)KANG
Canada Life
12년간근무중
교육및
생명보험
은퇴연금
R·R·S·P
세금공제
B) 868-0922
R) 622-5147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NORTH YORK
GM
CHEVROLET
OLDSMOBILE
친애하는 교민여러분
항상 아낌없이 성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6월1일부터
저희 회사에서는
종전과 같은 주소에
캐나다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제일 큰 쇼-룸과
써비스 시설을
갖추고
여러분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써비스를 제공할수
있게 되었아오니
1차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김 병 권 올림

김 병 권
새차및
중고차
7200 YONGE ST.
THORNHILL L4J 1V8
☎: (B) 881-5000, (R) 496-0954

제일여행사
■모국방문 특별요금
KAL (뉴욕 또는 LA 경유)
CP, JAL (VANCOUVER 경유)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각종단체 관광요금
■여권, VISA 수속 서비스
■방문초청, 이민초청
(제반수속 안내및 작성)
유 지 원
621 BLOOR ST. W.
(B)535-2377
(R)366-0864



KAWAI
KEYBOARD
CENTRE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피아노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카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카나다 통계국 발표〉
■카나다 최고이고, 유일한 한국인
딜러가 교민들에게 특별 할인 판매
합니다.
MARKHAM PLACE MALL
2900 STEELES AVE. EAST, THORNHILL
881-8211
윤 호 섭

SunLife OF CANADA
취 급 보 험
□생명보험
□연금제도
□교육보험
□그룹보험
□주택, 건물및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R.R.S.P
보장된 삶을 가지세요!

김신명

TORONTO METRO BRANCH SUN LIFE OF CANADA
22 St. Clair Ave. E. 4th Floor Toronto Ont. M4T 2S3
TEL B 922-3111 R 439-8885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M5S

캐나다선교부 영향 지대

전택보씨의 이민개척 원동력 많은 기독교계인사 이민자극

[21일자에서 계속] 캐나다교포는 한국서 온 자 외에 미국에 있던 유학생, 브라질및 알젠틴등 남미서 온 사람, 서독서 온 사람, 월남서 온 사람등 크게 5개부류로 나눌 수 있으나 이민자의 대부분은 한국서 직접 온 사람들이다.

한국으로부터의 이민의 길을 터준 전택보씨는 어떤 연유로 해서 캐나다이민에 착안하게 되었을까? 그는 정부 고위당국자도 아니었고, 인구문제 전공학자도 아니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경제인이었다. 그러나 그의 약력을 보면 47년 창설한 무역회사 천우사 외에 대성목재, 조선피혁, 삼익선박, 대한선박, 한국축산개발의 대표, 한국무역협회 부회장등 많은 경제단체 간부직을 지냈고 정치, 국제외교, 사회, 종교, 교육, 언론분야에도 폭넓게 관계했다. 60년 상공부장관, 덴막 명예총영사, 국제법학회 부회장, UN한국협회 회장, 한일경제사절, 조선일보사 대표, 서울YMCA 이사, 창경원 재건위원장, 숙명여대및 서울여대 재단이사장등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하다. 그는 진취적이었고 장래를 볼 줄 알았던 것이다.

전박사의 백그라운드를 좀더 보면, 그는 1901년전씨 가문이 대부분인 함남 문천에서 출생한 후 7살때 부친 전종적씨가 기독교에 입교하자 독실한 신자가 됐다. 1914년 14세때 부모와 함께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간도(현재 만주 연길지방) 용정으로 이주, 용정교회가 세운 영신학교에 입학했다.

21년 일본에 유학, 명교중학을 거쳐 29년 신호(고오베)고상을 졸업했다.

그는 45년 해방이 되자 함남 함흥YMCA 재건운동을 하다가 공산정권을 피해 월남했다.

◇전택보씨(왼쪽)가 덴막 명예총영사직을 3남 순재(오른쪽)에게 물려주는 파티에서 당시 덴막 주한대사(일본상주)와 함께 서있다.

온타리오 이민사연구소의 김정근씨는 전박사가 월남후 이북 피난민과 실업자 문제등에 항상 관심을 갖다가 누구도 생각 못할 때 캐나다 이민에 착안하고이를 추진한 것은 함경남북도에 와있던 캐나다 선교사들의 영향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장로교 선교부는 1898년부터 1942년까지 함경도 원산, 함흥, 성진, 회령, 용정(간도)에 기지를 두고 선교활동을 폈다.

노바·스코셔주 할리팍스등 주로 동부 해안주에 있던 스카티쉬(스코트랜드)계 선교사들인 이들은 나귀나 자전거를 타고 선교하는 외에 병원, 학교등을 지어 함경도인들을 계몽하고, 서양문물을 소개했다.

김정근씨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3살때 북간도로 이주한 전박사는 낮선 용정에서 형님벌 되는 전택후씨를 만났다. 전택후씨는 기독교계 서점을 경영하다가 선교사 배의도(Miss Palethorpe) 여사의 보좌원을 지냈으며, 그후 목사가 됐다. 전박사는 전택후씨를 통해 선교사들과 접촉했고, 그들을 통해 캐나다를 알게 됐다. 그의 의식에 캐나다가 들어있게 된 연유였다.

전택후씨의 외아들이 전충림씨(토론토〈뉴·코리아·타임스〉 발간)이다.

전충림씨는 홍콩을 거쳐 62년 이미 캐나다에 와있었다.

전박사는 64년및 66년경 부관리들을 만나러 캐나다에 왔을 때 전충림씨 집에 묵으며 이렇게 당부했다. "만주에서는 부친 덕분에 많은 은혜를 입었다. 이제는 자네가 전씨가문등 한국 사람들을 많이 캐나다로 이주시켜라. 남한은 땅이 비좁은데 인구가 너무 많다"고.

전택균씨를 비롯, 전충림씨의 4촌인 전항림, 우림, 동림씨, 동서 최동호씨등 20개 정도의 전씨 가문이 토론토에 있는 것도 우연은 아니었다.

전충림씨의 뒤를 이어 66년까지 김창우, 김순창, 윤창근씨가 캐나다로 왔다. 이들은 모두 교회장로였고, 서울YMCA내 고려와이즈멘즈(Y's Men's)클럽의 1, 3, 4대 회장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전충림씨는 2대 회장이었다.

캐나다선교부의 영향은 신학생들의 캐나다 유학에서도 나타난다. 김씨가 조사한 최초의 유학생은 1915년에 온 조희렴씨였다. 그는 노바·스코셔주 「달하지」대학, 토론토대학교 낙스·칼리지, 미국유학을 거쳐 12년만에 귀국, 원산의 말타신학원 원장이 되었다.

두번째 유학생인 강용흘씨는 1919년 왔다가 문학으로 전환, "초가집(The Grass Roof)"등의 작품으로 유명한 소설가가 되었다. 그는 45년 이전 북미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이었다. 그는 끝까지 귀국하지 않았다.

3번째는 1922년의 김관식씨, 4번째는 1928년 토론토대학교 임마누엘신학교에서 수업한 문재린 목사. 그는 귀국해서 45년까지 용정중앙교회 목사를 지냈다. 토론토에 이민온 문목사는 오랫동안 서울서 반정부투쟁을 벌인 문익환, 문동환 교수의 부친으로 최근 한국으로 귀국했다.

유학생 5호는 1934년의 김준성씨로 미국에 영구체류했다.

이들은 캐나다전교부 가 선택해서 모두 신학을 배우도록 유학시켰다. 캐나다선교부는 일본의 박해로 42년 철수했지만 선교부와의 인연으로 많은 사람이 캐나다에 유학왔다. 정대위(오타와 소재 칼톤대학 교수), 강원룡, 서남동, 조향록, 신성국(뉴욕거주), 김익선(토론토연합교회 부목사), 엄요섭, 이상철, 김정준 목사등이 이에 속한다

문재린 목사를 위시해서 토론토 거주 김재준, 이상철 목사가 명예신학박사학위를 받은 것도 캐나다선교부로부터 이어져온 유대관계의 결과라고 보아진다

1972년 6월 할리팍스의 헬렌·메그레·파커·리여사는 캐나다정부(캐나다·카운슬)의 지원으로 한국을 방문, 전택보씨를 인터뷰했다. 이 인터뷰에서 전씨는 캐나다이민의 문을 두드린 이유, 상황등을 설명했고, 이 설명은 전씨가〈한국일보〉에 게재한「나의 이력서」에서 밝힌 내용및 김씨가 조사한 캐나다이민의 뿌리와 일치했다.

함흥서 태어난 역사가 헬렌·리 여사의 부친은 1898년 캐나다가 파견한 최초의 한국선교사 3명중 1명이었다. 리여사는 한국·캐나다 선교관계 서류목록을 책으로 작성했다.

이같은 사실(史實)을 중심으로 볼 때 캐나다에 한국인 이민길의 뚜껑을 연 선구자는 전택보 사장이었지만 그를 행동하게 만든 저변의 역할자는 캐나다선교부였다. 캐나다선교부는 또한 많은 기독교계 인사들의 이민을 자극한 먼 원인이 되었다.

CANADA
DEPUTY MINISTER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OTTAWA 4, July 2, 1964.

Mr. Taik Bo Chun,
President,
Chunusa Company, Ltd.,
Sokong Building,
81, Sokong-Dong,
Seoul, Korea.

TAIK BO CHUN

Dear Mr. Chun:

I was pleased to receive your letter of May 25th, and learn that your recent trip to Canada was a success.

I am sorry that I have not written to you before now. I withheld my reply pending the completion, by this Department, of arrangements to improve the facilities available for the examination of would-be immigrants in Korea. Fortunately, these arrangements have now been completed. Consequently, we are in a position to consider applications for admission to Canada as immigrants from all the categories of persons as outlined in the

◇이스비스터 이민성차관이 전택보씨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 이 편지에서 캐나다는 한국이민자를 받아들이 겠다고 밝혔다.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㉜

팔리·모왓 원작, 원재훈 옮김

즉 날개가달린 노랑게생긴 무서운 놈이 죽은사슴위에 살짝 앉아서 배가 볼록한 산란관을 이리저리움직이면서 아주 미세한알을 까놓고 있었다.

알은 몇분후에 유충으로 변해서 가죽을 뚫고 숨어버려 핏줄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살속에서 나온 사슴의 동가죽 바로 밑에 주머니 처럼 누어 있다.

다음해 봄쯤 이들 주머니는 완전히 커지고 손가락의 마지막 매듭 만큼이나 큰 물렁물렁한 구더기가 된다. 한마리의 사슴동어리에서 이 회고 징글 맞은 기생충을 2백마리나 세어보았다. 유월쯤되면 살이 통통하게 찐 구더기는 살속을 뚫고나와 마치 기관총에라도 맞을까봐 혼란을 빚는 것처럼 꼬물 거리고는 번데기가되어 땅에 떨어진다.

이 두번째 악마같은 파리는 아주 못된 놈이다. 왜냐하면 이 구데기는 살속에서 살지않고 사슴의 콧구멍과 목구멍속에 작은 그레이프 후르트 크기만큼 단단하게 엉겨붙어 숨이막혀버려 사슴이 죽음을 피할 도리가 없게 만든다. 한번은 마고트라고 불리는 일인치 길이의 큰 구더기를 한마리의 사슴 콧구멍에서 130마리나 잡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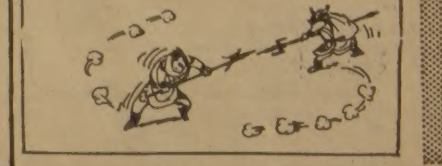
어쩌면— 비록 이 가정을 증명할 길이 없더라도 — 즉 사슴떼를 이른 봄에 북쪽 깊숙히 몰고 가는 것이 이 여러 종류의 파리떼의 위협이라면 북쪽으로 올라 갈수록 파리떼가 생기는 계절이 늦어진다. 그렇다면 다시 여름의 진전에 따라 파리들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죽어 없어진다면, 사슴 떼는 피를 뜨끼지 않는 목초를 찾아 모기가 없어지는 지형을 따라 다니는지도 모른다.

이것이 사실인지는 잘모겠지만 내가 중앙의 바렌에서 지내고 있는 동안 사슴이 여름에 도착하는때가 우연히도 파리가 마지막갑자기 없어지는 바로 그 시기와 아주 일치 한다는 것은 알고있다. 이 파리 떼에 관하여 이야기 하면서도 사슴에 붙어 기생하는 단명의 이 곤충을 주제로 삼는 것은 나자신 역시 피로하다. 이들 큰 마고트 파리는 카리브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잘 알려져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북쪽에 처음 온 사람도 사슴의 동가죽 밑에 서식하는 다른 흉칙한 곤충의 생태에 관하여 상식을 갖게되니까 안심해도 된다. 기생충은 수없이 많다. 내자신의 연구를 통해서보면각 사슴마다 다른 위협에서 살아 남는다 해도 기생충이 너무많이 체내에 기생하기 때문에 하루종일 풀을 뜯어먹어도 그냥 죽어 버리고 만다. 그곳에 사는 모든것이 다 똑같이 사슴이 기생충과 낭종에 찌들어 결국 죽게 되기 전이라도 12년간을 더 살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혹시 독자들중 언젠가는 카리브의 제일 좋은 로스트 스테이크를 대접 받았을 때의 계통을 위해서 내가 늙은 숫사슴에서 잡아낸 실제 기생충들을 나열해본다.

몸체의 근육속에는 큐빅인치당 평균 두마리의 촌충의 포낭이 집결되어있다. 근육의 어느부분도 이 징그러운 것이 건드리지 않는 곳이 없었고 이것 말고도 선충류(線蟲類) 촌충이 아무렇게나 물을 뿌려 놓은 것처럼 번성해 있었다. 허파도 역시 죽은 후에도 매우 활동적이었다. 세여보니 17마리의 선충류촌충이 그속에서 있었고 모두가 길이가 6인치나 되었다. 간에는 두 종류의 촌충 포낭이 있었고 어떤것은 테니스 볼만큼 컸다. 내장은 다 큰 한마리의 큰 길이의 오래된 촌충이 점령하고 있었고 심장속에서도 6마리의 촌충을 발견했다. 다른 기생충으로는 동가죽 밑에서 190마리의 쇠파리구데기와 목구멍과 콧구멍 속에서 75마리의 왕파리 구데기를 잡았다. 이 사슴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슴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놈은 단지 늙었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기생충에 시달리고 있었다.

(계속)

주식회사
신의상사
취급품목 ◆담배류
◆쵸코렛및 캔디류
◆GROCERY BAG류
116 TYCOS DR. TORONTO
TEL. 781-6669 * 781-6660 * 781-6012
대표 문인식



교포특별우대… 이 쿠폰과 함께 20%할인 …남자용각종의류 및 악세사리 미스터오 FOR MEN

TIE CITY
Square One
275-2187

Mister O
Cumberland Centre
2 Bloor St. W.
964-2606

Mister O
Commerce Court Centre
869-0589

북미최대의한국식당
한식·중화요리·화식·캐네디안식
거구장

거구장

※환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대소연화
영업시간 : 아침11시부터 밤2시까지 연중무휴
가수와밴드 : 목, 금 토, 일(8시30분부터 밤2시)
가　수 : 신 현 회

특별메뉴
개스불로 굽는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중화요리·케네디안식
요리전문
2백대 수용무료파킹장

5 BETHRIDGE RD. ETOBICOKE
KIPLING×HWY 401서 1 블럭 북쪽 첫신호등서 좌회전
☎ : 742-1618 곽정렬·김선남

避暑人波 3백만…65명溺死

전국최고 浦項36·8度 불볕더위 당분간 계속

休日하룻동안

휴일인 19일 부산海雲臺를 비롯한 전국의 해수욕장과 유원지에는 무더위를 피해 약3백만명이 넘는 피서객이 몰려들었다. 이날 피서인파는 부산海雲臺해수욕장에 70만명을 비롯, 廣安里 40만명등 부산5개해수욕장 등지에 1백60만명이 몰려들었고 浦項송도 13만, 江陵鏡浦臺 3만, 大川 5만등 전국에서 3백만명을 기록했다. 또 서울시민들은 대부분 牛耳洞등 인근 유원지와 산내외 풀장을 찾았다. 또 이날하룻동안 전국에서 65명이 물에빠져숨지고 13일~19일까지 1주일간에는 무려 1백57명의 익사자가 생겼다.

1주일째의 살인적인 무더위가 당분간 계속될것같다. 휴일인 19일 浦項이 18일에 이어 36·8도로 전국최고기온을 보인가운데 전국이 30도이상의 폭염에시달렸다. 무더위는 20일에도 수그러들지않아 浦項36·5도를 다시 최고로 大邱35·9도, 蔚山35·5도, 江陵35도, 晉州·全州33·6도, 光州33·9도, 大田33·4도, 木浦33·4도를 기록했다. 관상대는 中伏인 21일과 大暑인 23일까지는 불볕더위가 맹위를떨쳐 江陵 大邱지방은 37도까지 치솟는등 전국이 30~37도의 혹서가 계속될것으로 예보했다.

"항구적 復舊對策 마련토록"

全대통령, 揷橋川水害地등 시찰

哨所장병도 위문

全斗煥대통령은 일요일인 19일상하오에 걸쳐 지난12일 폭우로 水害를입은 忠南禮山郡과 洪城郡등 揷橋川일대를 시찰, 복구작업중인 주민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서해안 ○○초소와 ○○방공대대에 들러 장병들의 근무태세를 점검했다. <사진>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헬리콥터편으로 忠南禮山郡新岩面中禮里에 도착, 승용차편으로 논두렁길을 지나 中禮里수해대책응급복구현장 지휘소로가 朴子洙禮山군수로부터 水害현황과 복구작업현황을 보고받았다.

全대통령은 보고가 끝난뒤 流失된 堤防보수공사장으로 걸어가 작업중인 주민들과 악수를 나누며 『장마가끝났지만 또 폭우가 내릴지 모르니 공사를 철저히해 다시는 水害가 없도록 하라』고 朴군수에게 지시하고 『연차적으로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세우도록 하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洪城郡洪北面龍山里 龍頭부락 수해복구현장에 도착, 金寬鉉洪城군수로부터 水害복구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지역의 상습적인 水害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揷橋川의 改修공사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 『내년도 정부예산에 이를 반영하고 忠南道도 일부 부담해 揷橋川일대의 연례적인 수해를 막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라』고 수행한 金周南 건설부장관에게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揷橋川 일대의 수해지역시찰을 모두 마치고 洪城郡 洪城邑內의 대중음식점인 서울식당에서 수행한 관계장관, 洪城郡관계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한사람의 나무를 들어야 산소공급이 원활하고 도시의 환경오염을 막을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소개하고 『공장지대는 물론 가정용에서도 나무를 많이 심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서해안○○초소와 ○○방공대대를 시찰, 장병들의 근무태세를 살펴보며 『기지체방어에 철저를 기하고 적의기습공격조기경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부대장에게 지시했다.

카니아再選

폴란드共産黨 제1書記

"中道改革 계속추진" 다짐

【바르샤바19日UPI=聯】 폴란드공산당제1서기 스타니스와프·카니아는 18일밤 공산권사상 최초로 민주방식인 직접·비밀투표에 의해 제1서기에 재선됐으며 재선 제1성을통해 좌우 어느쪽에도 치우치지않는 개혁을계속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총1천9백55명의 대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동구사상 최초로 실시된 이번 당제1서기선거에서 카니아는 1천3백11표를 얻어 5백68표를 획득한 유일한 경쟁자인 중도파중앙위원 카지미에르츠·바르치코프스키를 누르고 당제1서기직에 선출됐다. 선거결과발표광경은 10분간 전국에 TV로 생방송됐다.

이날 선거에서 60명은 후보에 반대표를 던졌으며 11명은 기권했고 5표는 무효표였다.

2백인 중앙위는 당제1서기 후보로 강경파 스테판·올셰프스키와 진보파 미에치스와프·라코프스키, 그리고 카니아의 중도노선을 지지해온 온건파 바르치코프스키등 4명을 천거했으나 올셰프스키와 라코프스키가 카니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후보사퇴를 표명함으로써 카니아·바르치코프스키간의 경합으로 압축됐다.

아세안5國 觀光客 적극誘致

全대통령指示 富裕層대상 中長期對策마련

4季節살린 관타지랜드로

濟州道를 관광自由地域으로

日本과 함께묶는 패키지觀光 알선

湖畔등에 골프場건설 許可도 검토

정부는 全斗煥대통령의 순방을계기로 아세안5개국에 대해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책을 펼방침이다. 지금까지의 관광시책은 일본과 歐美에만 중점을둬 왔는데 정부의 방침이 이처럼변한것은 대통령의순방이후 이지역의 관광잠재력도 높다고보아 이를 적극개발키로 한것이다.

20일 교통부에 의하면 全斗煥대통령은 지난번 아세안 5개국을 순방하고 귀국한 직후인 지난11일 尹子重교통부장관과 河大敦국제관광공사 사장을 청와대로불러 아세안 5개국에 대한 관광유치 적극화를 직접지시했다는것.

이에따라 관광정책의방향과 대책을 세우고있는 교통부는 우리나라를 찾는아세안국가관광객의계층을 우선부유층으로 잡고중·장기대책을 세우고있는데 중기대책으로는 ▲濟州지역의관광자유지역화 ▲관광산업의 수출산업화 ▲꼭보고갈만한관광명소(가칭·환타지랜드)의건설등이, 단기대책으로는▲4계절의장점을 필름·선전물등으로 널리 홍보·선전하는「4철관광」에 주안점을두고▲관광객유치단을 파견하며▲일본지역과 함께묶어 한국을 여행할 수있도록 패키지관광을 적극 알선하는것등을 검토하고있다.

교통부는 또 현재 86년에 달성하도록돼있는 2백만명관광객유치목표(금년목표1백18만명)를 아세안국가의 관광객유치증대로 오는 83년까지 앞당겨 실현하는방안을 별도로 강구키로했다.

교통부는 또 골프관광객의 유치를위해 종전에 억제해왔던 골프장개설허가를 자연경관이 수려한 호반(湖畔)의 임야에 대한 골프장건설을적극검토, 허가해주기로 방침을정했다.

교통부가 구상중인 濟州지역의 관광자유화는 홍콩지역과같이 免稅를포함한 특수관광지역을 발전시키는것을 의미하며 관광산업의 수출산업화는 관광업체에대한 稅制·金融면에서 수출산업체와 동등한 혜택을 해주자는 것이다.

또 국제관광공사도 河사장이 직접 8월중에 아세안국가를순방, 정부의 관광기관 및 민간관광단체등과 협의를갖고 아세안지역 관광객유치 증대방안을 마련키로 하는한편 현재 아세안 5개국중 싱가포르 1개소밖에없는 해외선전사무소를 다른 국가에도 증설하는 문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를 찾은 아세안 5개국의 관광객수는 지난 79년 한해의 경우 ▲태국 8천6백13명 ▲말레이지아 7천2백80명 ▲필리핀 6천7백79명 ▲싱가포르 4천4백58명 ▲인도네시아 4천3백83명등으로 모두 3만1천5백13명에 불과해 전체 아세안 5개국 관광객의 3%미만이 한국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受注보장

印尼 28億弗 LNG공사

방한중인 인도네시아의 퀘트노모시디·하지사로소 公共사업성장관과 에디·코와라 건설협회장은 20일 올해부터 시작되는 인도네시아의 3차 5개년계획기간중 아직 발주하지않은 LNG(액화천연가스) 및 정유공장 시설공사가 28억달러규모에 이른다고 밝히고 한국업체가 自國업체와 공동으로 입찰에나설경우 元請者로서 도급을 맡을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美·日업체들이 元請者로 되어있는 미발주된 40억달러규모의 공사는 韓·印尼합작업체가 반드시 하청을 받도록하겠다고 말했다.

全斗煥 대통령의 아세안5개국순방이후 지난19일 관계국 각료로서는 처음으로 내한, 그동안 관계인사들과 양국간 건설협력방안을 협의해온 퀘트노모시디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갖고 앞으로 인도네시아 건설업체와 동반자로서 협력하는 한국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西方7國경제頂上회담開幕

오타와서 景氣침체·中東사태 論議

레이건、獨슈미트·佛미테랑등과 個別회담

【오타와20日AP·AFP=聯】 미국을 비롯한 주요서방선진공업국들은 20일 캐나다의 퀘벡주 몽트벨로에서 ▲중동위기와 폴란드사태등 주요국제정세와 ▲세계적인 경제침체 ▲동서무역 ▲빈국들에대한 경제원조등 주요현안들을 협의하기 위한 2일동안의 제7차 정상회담에 들어간다.

참가국 정상과 외상·재상들은 19일밤 오타와 동방88㎞에 소재한 몽트벨로城서 각기별도의 만찬을 갖고 앞으로 토의될 내용들에 관한 협의를 가졌다.

취임이후 처음으로 이회담에 착석한 레이건미 대통령은 이날밤 미행정부경제책을 가장 신랄히 비난은 슈미트 서독수상,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등과 개별회담을 가졌는데 미정부소식통들은 이에 앞서 이들이 미정부의 고금리정책에 따른 유럽공동체(EC)와 미정부간의 마찰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숙의하는 외에도 대소정책, 아프가니스탄 사태등에 관한 의견교환을 가질것이라고 내다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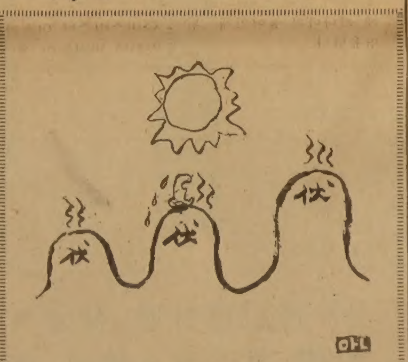
회담소식통들은 미국이 이번회담에서 高金利정책을 지양하라는 EC측의 일관된요구에 직면하는 동시에 최근 급격히고조된 중동위기와 관련, 영국등으로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편향된 지원입장을 시정하라는 강력한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캐나다에서 열린 7개서방선진 공업국정상회담에 참가중인 로널드·레이건 美대통령(左첫번째)피에르·트뤼도 캐나다수상(左2번째)프랑스와·미테랑 프랑스 대통령(左3번째) 마거리트·대처英國수상(右첫번째)가 만찬을 나누고있다. 【몽트벨로19日AP電=聯】

아프간의 獨立존중 外務部성명

외무부는 20일『아프가니스탄의 독립·主權및 영토보전이 존중되고 아프가니스탄인이 그들의 자유의사에따라 장래를 결정할수있는 상태가 회복돼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을 천명했다.

社會漫評



오늘 中伏

韓赤총재 金溶植씨

◇金溶植씨

대한적십자사는 20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오는 25일로 임기가 끝나는 李浩총재후임에 전주미대사 金溶植씨를선출했다.

제14대총재로 선출된 金씨는 대통령의 인준이 끝나는대로 총재직에 정식취임하게된다.

◇약력 ▲13년 경남忠武출생 ▲37년 일본中央대 法學部졸 ▲49년 주홍콩·호놀룰루총영사 ▲60년 외무부차관 ▲61년 주영국대사 ▲63년 외무장관 ▲64년 주유엔대사 ▲71년 외무장관 ▲73년 통일원장관 ▲77년 주미대사

地平線

요즈음 국제경기에서의 勝戰소식이 자주 전해져 흐뭇하다. 대만서 열렸던 존즈컵세계여자농구대회에서 우리나라 美女들이 獨·和·美등 西洋의 장다리 女子선수들을 차례로 물리쳐 우승했고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열린 세계靑少年야구대회에서는우리 어린 선수들이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서는 韓美大學生선발야구선수권대회가 열려서 우리 선수들이 작년의 패배를 大뒤집고 이겼다. 일요일저녁 邸에서는金煥珍선수가멕시코 선수 플로레스군에게 도전하여 통쾌하게 KO로 물리치고 당당히 WBA주니어플라이급王座에 오르게됐다.

▼섭씨30도를 넘는 무더위속에서 선수들이 경기에 열중하는 모습을지켜보는일도, 특히 그 경기에서 우리가 이겼을 경우, 더위따위는 비키라!며 열광·통쾌·환희 바로 그것이다. 이긴 선수들의 기쁨과 충족감이야 더 말해 무엇하랴. 사람이 무엇에든지 열중하면 전문가들이 現代人類 최대의敵이라 일컫는 無聊症에서 해방된다. 열중 그 자체는 心身의 긴장과정이며 사람은 心身긴장을 통하여 心身발달(단련)을 이룩하되 心身긴장과정은 바로 心身愉悅의 계기다. 운동경기는 사람에게 이런 긴장·발달·기쁨을주는 거리중에서 그으뜸가는 종목이니 그래서 경기는널리 사랑을받는다.

▼世上萬事가운데운동경기만큼 그過程이 중요시되는것도 드물것같다. 세계적으로 공통되는 까다로운 경기규칙이 마련되고 이 규칙을 털끝만큼이라도 위반하면 즉시 그에대하여 벌을 내린다. 선수 각자의 정정당당한 승부(페어플레이)가 강조되고 규칙준수를 보장키위해 심판에게 부여된 권위가 절대적인점에서 운동경기만큼 엄격한것도 드물다. 심지어 심판은 反則敗까지도 선언할수있는것이다. 심판의 높은 자질과 공정한 자세가 더없이 강하게 요구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때때로 경기에 따라서는 자주 심판의 잘못된 판정이 말썽을 일으킨다. 심판도 감성있는 사람이고 사람인 이상 全知全能한수는 없는지라 誤判을 근절키는 어려우나 의도적인 誤判만은 제발없어야 하겠다. 특히 국제경기인 경우 나라에 따라서는 이른바 텃세가 강하여 심판이 외국 선수에 대하여는 지나칠정도로 가혹하면서 主催國선수들의 反則은 못본체하는 일이 非一非再하다.

▼後進社會일수록 그런 편파성이 심하며 「홈그라운드의 利點」이란 표현속에는 심판의 그런 自國선수 편향성도 加味되어 있는것 같다. 관중들은 그런심판의자세를 愛國心의발로라고 야유한다. 대체로 우리나라 국제심판들의 좋은 자질과 공정성은 높은 편이라고 남들이 평하는것같다. 부디 이런점에서 선수들의 우수성과 균형을 맞추어 더욱 좋은 경지를 구축했으면 한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410
은 : 온스당 US 8.62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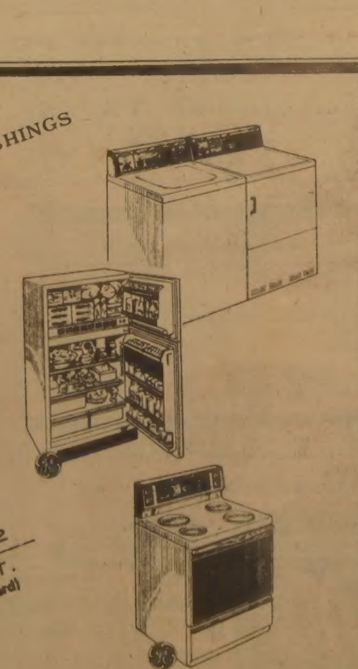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번역·통역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203
Tor. M4A 2R1
※통역은 필요일만 합니다.
☎ : 759－9505(5시이후)

〈김미영 한국 민속무용 연구소〉
MI YOUNG KIM'S KOREAN FOLK DANCE INSTITUTE
경력 :
●6세부터 부친 김윤학씨 사사
●제1회 전국국교(이화여중·고 및 조선일보사 공동주최)무용콩쿨대회 1등 수상
●제4회 전국중·고교 무용콩쿨대회 1등 수상 (이화여대 주최)
●배화여중·고 동창회 주최 무용발표회 개최
●김미영 무용발표회 수회 개최(한국예술극장, 전국)
●무용연구소경영(서울돈암동 12년간)
●일본및 유럽순회 공연
●현 김미영 한국민속무용 연구소 경영
학력 : 배화여중·고
이화여대 무용과 졸업
金美影孃 舞藝妙境
金美影 그이름 世界에 빛나리
〈만5세 이상 남·녀 어린이 지도 합니다〉
201 VAN HORNE AVE. #509(Donmill × Finch)
499－5079
※고전무용에 필요한 무대장치및 소도구 제작에 오랜 경험이 있으신 분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偉信電器地毯公司
WILSON APPLIANCES & HOME FURNISHINGS
BUY NOW & SAVE!
각종 전자제품. 냉장고 세탁기, 드라이어.
박리다매를 목적으로 모든전자제품 특별세일.

593－1801, 1802
83 GERRARD ST.
(LuCliff Place · Bay & Gerrard)

英語교육 어떻게… ⑤

外國語연구指定學校의 實像

目標단순화…傳達能力 높여 文法·構文위주 과감히淸算

최근 영어교육에대한 반성이 매스컴을 뒤덮자 문교부는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반성이 고조될수록 문교부는 「그동안 놓고만 있었느냐」는 질책을받게될 입장에 놓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문교부는 그동안도 외국어교육의 개선을위해 뒤늦게나마 나름대로의노력을 해온게 사실이다.

79년에 중·고교영어 교과서를 개편, 각단원마다대화문을 넣는등 실용영어중심으로 바꾸었고 이때부터 외국어담당교사의 해외연수를비롯 시청각시설을 개발, 보급해 현재 약3백개학교가 「語學室」을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도 전국에 10개교를 외국어연구학교로 지정, 한학급 70명이넘는 우리학교실정에서 어떻게하면 실용영어의 교습이 가능한가를 찾기위해 그지도모형과 지도자료, 평가자료, 어학실활용프로그램을 개발해오고있다.

서울 宣德중학교(道峰區쌍문洞·교장 金顯泰)는 바로이 10개의 외국어연구학교중 하나이고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지정을받은 곳이다.

영어학습의 연구를위해 이 학교가 이번학기초에 문교부에서 지급받은 연구비는 4백70만원. 이 돈과 재단측의 출연으로 시설완료된 어학실을 중심으로 미국연수를 끝낸 6명의 영어담당교사가 한학기수업을 끝내놓고있다.

—잘돼가고있습니까.

▲영어에 대한 흥미가 굉장합니다. 간단한 영어라도 서로 주고받으려는 학습의기본태도가 세워졌읍니다. 이것만도 큰 성과가 아닙니까.

—어떻게 가르치니까 일반학교와 다른점말입니다.

▲중학영어과정에 나오는 어휘는 8백50개입니다. 이단어를 최대한 활용, 영어로 「듣고 말하는」 능력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고있읍니다. 우리는 영어교과서자체를 재구성했읍니다. 매단원마다 나오는 회화과정을 확대, 응용해서 재구성한것이지요. 이것을 프린트해서 학생전원에게 배부합니다. 교과서를 읽히고 우리말로 번역시키는 방법대신 교사와학생간, 학생과 학생간에 재구성된 교재를중심으로 대화를되풀이 해서 주고받는구어훈련중심으로수업이이루어지고있읍니다.

이학교영어교사들은 우선 영어교육의 목표를 다른학교보다 훨씬 단순화시켰다. 「전달능력」의 향상, 이것이 전부다. 그리고는 교과서에 나오는핵심문형이 수많은 다른문장으로 변형되고 활용되어가는 과정을「반복」이라는 방법으로 집중훈련시켜 몸에 배게하는 것이다. 선생들은 영어의 文法을 論理로 가르치는게 아니고 조건반사적인 훈련으로 가르친다고 설명했다.

또 영어의 습관화를 위해 수업시작에 영어노래, 영어인사를 도입했고 매일아침수업시작전5분동안 각교실에 간단한 회화를 들려준후 그내용을 복도에 매일매일 써붙여놓고있다. 이학교 어학 실습실의 수용능력은 1회70명, 각 책상마다 헤드폰이 가설되어있어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는 보턴으로 학생 개인을 쉽게 호출해내 대화를 나눌수있고, 대화내용의 녹음을 재생해서 발음을 교정할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매주 1~2회씩이 어학실습실에서 영어교육을 받고있다.

그러나 교사들은 이새로운 영어학습계획을 1학기동안 시행하는 과정에서 몇가지문제점이 제기됐다고 말한다.

그 하나는 학급의 과밀에서 오는 문제이다. 영어에의 한 전달능력향상을 위해서는 분단학습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지만 현재 70명이 수용되어 있는 학급을 다시 4~5개의 분단으로 편성한다면 교사1인이 이많은 분단의 학습을 돌보아주고 이끌고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학교 金容新교사(40)는 『영어교육을 위한 분단학습은 과학실험을 위한 분단학습과는 달라서 교사와학생이 빈번히 접촉하고 대화를 해야하는데, 현재의 과밀학급에서는 이같은 분단학습으로는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것이 지난 1학기의 경험으로 입증되었다』고말했다.

어학 실습실을 이용할 경우, 교사가 학생 개개인에게 영어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늘어나지만 현재 1개학급이 주1회만 실습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한 학습효과를 거두기가 어렵고, 그렇다고해서 영어수업시간(현재 주4시간)을 무리하게 늘린다면 교과과정에도 위배되고 다른 학과목에도 압박을 가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수업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3학년에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진학위주의 수업을 하지않을 수 없기 때문에 1, 2학년의 수업내용과 3학년의 수업내용이 계통있게 연결이되지 않으리라는 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이학교영어과 주임 崔重植교사(44)는 밝혔다. 새로운 영어교육의 대상을 1, 2학년으로만 국한한 것도 그같은 점때문이라고 崔교사는 설명했다.

이학교 영어교사들에 의하면 이 새로운 영어교육 계획에 따라 앞으로 계속 수업을 해나갔을 경우, 학생들의 학습성취도를 성적으로 정확히 측정해내는 것도 연구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宣德중학교의 영어교육실험은 몇가지문제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성공적이다. 문법구문위주의 교육을 과감하게 청산했다고 해서 그런것이 아니고 우선 대다수학생들이 영어를 좋아하고 친근히 생각하고있다는 점에서 더성공적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학교는 「영어에 관해서」만 가르쳤지 영어그자체는 안가르쳤다는게 모두의 지적이다. 宣德중학의 수업은 아마도 우리나라에선 처음시도되는 본격적인 영어수업인지도모른다. 【金 薰기자】

◇문교부지정 언어 연구학교인 서울 宣德중학교의 어학실습현장. 실습실을 이용할 경우 교사와 학생간의 접촉의 기회가 많아지고 발음 교정도 수월하다.

自由化 계속推進

波、카니아再選의 意味

親蘇派敗退로 黨內立場확고 勞組합법화·言論검열완화도

◇폴란드특별共產黨대회에서 東歐사상 최초로 투표에의해 黨제1서기에 재선된 스타니스와프·카니아가 18일 당선후 당대회에서 연설하고있다. 【바르샤바19日AP電=聯】

◇소피아波政治局員

【바르샤바19日AP=聯】 스타니스와프·카니아는 최근의 제9차 폴란드공산당 특별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의 민주적인 직접·비밀투표에의해 당제1서기로 재선됨으로써 소련블록의 가운데 하나인 폴란드의 「가장 소란스러운 혁명」의 개혁을 계속 추진할수있게됐다.

카니아는 노조위기속에 작년9월6일 폴란드 국내보안책임자로서 소수의 국민들에게만 알려졌던 미지의 인물이었다.

카니아가 소련블록 최초의 자유노조 솔리다르노스크를 탄생시킨 역사적인 그다니스크협정에 서명한지 얼마되지않아 당제1서기로 부상하자 많은 사람들은 그가①국내개혁운동을 억제하고②경제난국을 극복하며③폴란드가 아직도 소련에 충성스러운 동맹임을 납득시키고④당내의 굳건한 강경파를 견제해야하는등 성취불가능한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았다.

작년여름 폴란드를 들끓게 만든 노동자파업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하는데 앞장서서 반대한 당간부중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카니아는 그러나 조용한 외교와 자제심으로 당내반대자들에 대처함으로써 그의 당제1서기 취임후 11개월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상당히 긍정적인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당내는 물론폴란드 국가전체의 혁명열기가 진정 기미를 보이고있는데다 폴란드의 민주화를 공산주의노선에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있던 소련이 그런대로 폴란드문제를 납득하고있으며 친소강경파들이 전당대회에서 사실상 패배했다.

분석가들은 카니아가 당기반을 더욱 굳혔다고 말하고있다.

실각한 前폴란드공산당 제1서기 에드바르트·기에레크의 지지자들이 다수를 점하고있던 당중앙위지도자들은 카니아의 정책에 번번이 제동을 걸었고 黨정치국원 타데우츠·그라브스키는 카니아의 권력에 도전하기까지 했었다.

그러나 카니아는 분열된 당을 전당대회에 집결시켜 최초의 민주선거를 통해 승리를 거둔것이다.

카니아의권력에도전했던 그라브스키도 5명의 다른 정치국원과 함께 정치적지위가 격하됐으며 前중앙위원회원으로서 이번에 재선된 사람은 17명에 불과하다.

기에레크 실각당시의 당정치국원중 이번 중앙위선거에서 재선된 사람은 카니아와 수상보이체흐·야루젤스키 단 2명이다.

카니아는 앞으로 폴란드공산당제1서기로서▲산업노조·농민노조·학생노조의 합법화▲언론검열에서의자유확대▲기타 자유개혁을 추진할것으로 보인다.

레바논南部上陸

이스라엘軍 팔攻擊 5일째

【베이루트20日UPI AP=聯】 연5일째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에 대한 보복공격을 확대하고있는 이스라엘은 20일 처음으로 함정과 헬리콥터등을 동원, 레바논남부 상륙작전을 전개하여 레바논남부에대한 지상 대공세를 단행했다고 팔레스타인의 와파통신이 보도했다.

이와함께 이스라엘군 사령부도 『이스라엘은 19일에 이어 이날 새벽에도 레바논–이스라엘국경부근의 팔레스타인 게릴라 기지들에 맹렬한 포격을 가해 많은 게릴라들의 공급로를 파괴시켰다』고 발표했다.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는 성명을통해 함정과 헬리콥터등에 분승한 이스라엘보병들이 이날 팔레스타인게릴라들의 거점인 나바티예와 자흐라니 지중해 연안도시 무세이레사이에서 약30분간 상륙작전을 전개, 나바티예와 티레를 연결하는 주요교량인 카시미에를향해 포화를 퍼부었으나 게릴라들의 맹렬한 반격을 받고 격퇴됐다고 밝혔다.

◇報復戰속 하비브-베긴 會談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게릴라간의 보복전이 계속되고있는 가운데 메나헴·베긴 이스라엘수상(오른쪽)이 필립·하비브美中東특사와휴전회담을갖고있다. 【예루살렘19日AP電=聯】

이、팔空襲 自體비판

라빈前首相 "軍事的으로 根絕못해"

【텔아비브20日AFP=聯】 이스라엘 노동당 출신의 이츠하크·라빈 前首相은 19일 팔레스타인 폭력주의는 군사적방법으로 근절시킬수 없다고 경고했으며 이스라엘 정부는 이를 의 존경의대상이되고있는 나라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스라엘노동당은 레바논공습을 지지하면서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들의 공격을 막도록 가능한한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라빈前수상은 이날 한 신문기고문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공군은 팔레스타인게릴라들의 공습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팔레스타인 게릴라들로하여금 카추샤로케트포를 사용하도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 이스라엘은 언젠가 선정된 목표물에 대한 작전을 벌인후 그래도 팔레스타인인들이 공격을 계속할 경우 대규모 지상작전을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核戰力현대화 對蘇협상議題못돼"

로스토 美군비관리국장會見

【본19日聯合=聯】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유럽배치 핵전력을 현대화하기로 한 결정은 對蘇무기회담의협상의제가 될수없는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유진·로스토미군비관리국장이 19일 공개된한 인터뷰에서 밝혔다.

로스토국장은 이날 서독주간지 피겔誌와의 회견에서 미국이 소련의 서유럽침공위협도를 최저의 수준으로 묶어놓을수 있는 동서간군사균형의 안정을 목표로 하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토가 소련의 신형 SS20핵미사일배치에대응, 5백72기의 퍼싱Ⅱ및 크루즈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키로한 결정도 협상의제가 될수있느냐는 질문에 「노」라고 대답하고 이 나토결정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의 이같은 발언이 만약 소련이 그들의 중거리핵미사일을 서유럽을 사정권내에 둘수없는 지점으로까지 철수시킬 경우에도 유효한가라는 질문을 받자 『두고봐야할 문제』라고 대답했다.

라자이首相, 단독候補 될듯

이란, 大統領선거 24일實施

【테헤란19日AFP=聯】 모하메드·알리·라자이 이란수상은 오는24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의 [illegible] 19일 밝혔다.

IRP소속인 이들 3명외에 비부보자가 마지막 순간에후보를 사퇴, 라자이수상을 지원해줄것을 유권자들에게 요청할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軍事·安保등서 美·中共관계強化"

브레진스키 展望

【北京19日聯合=聯】 미국과 중공간의 군사및 안보관계는 점차 강화될것이며 양국관계는 소련의 점증하는 군사력에 대응하기위해 「같은 마음을 가진 국가들의 연합관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즈비그뉴·브레진스키 前백악관안보담당 보좌관이 19일 말했다.

브레진스키씨는 10일간의 중공방문을 마치고 20일 떠나기에앞서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공이 미국과의 안보및 군사관계의 확대를 바라고 있으며 양국관계는 정기적인 협의및 군사정보의 교환을 다양한 형태로 확대, 발전될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미·중공관계를 위협하는 까다로운 대만문제를 다루는데있어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것을 레이건미정부에 경고했다.

오늘의 역사 <21일>

▲美 작가 헤밍웨이 출생	(1899)
▲獨 전투기, 모스크바 폭격	(1941)
▲당인리발전소, 가동	(1951)
▲政府, 재일교포북송을 국제적십자에 항의	(1954)
▲세계 첫여수상 반다라나이케취임	(1960)
▲美 아폴로11號 인류최초로 月世界 정복	(1969)
▲이란回教政府 정식출범	(1980)

쫓겨난 蘇KGB 車속에서 情報거래

2등書記官이란 身分이용 말聯 핵심적人物에 接近

능숙한 社交術…이름도 여러가지

【쿠알라룸푸르聯合=聯】 최근 말레이지아에서 외교관신분으로 간첩활동을 벌인혐의로 추방당한 소련비밀경찰 KGB(국가보안위원회) 첩보원 3명의 행적은 소련이 외교공관을 통해 자행해온 스파이활동전모를 폭로해주고있다.

지난13일 말레이지아정부로부터 추방명령을받은 쿠알라룸푸르주재 소련대사관 2등서기관 블라디미르·로마노프는 능숙한 사교술과 유행하는 농담을 구사하며 소련대사관부근의 한 술집에서 여러친구들을 사귀어온것으로 밝혀졌다.

로마노프는 실상 외교관이 아닌 KGB요원으로 쿠알라룸푸르에서 현지실정에 맞는 첩보원을 양성하는기술을 터득했으며 2년여의 재임기간에 말레이지아 고위관리인 시디크·정부의 모하메드·구세박사를 포섭하는데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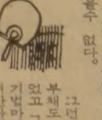
시디크박사는 지난15일 정식취임한 마하티르·모하마드신임수상의 핵심정치보좌관이었는데 현재 소련을위한 간첩활동혐의로 조사를받고있으며, 한편 로마노프는 가족및 다른 소련외교관 2명과함께 모스크바로 돌아갔다.

지난76년10월 쿠알라룸푸르에 부임한 로마노프는 시 고급주택가에 호화저택을 빌렸으며 고급승용차를 굴리면서 마을에서 덕망높은 인사로대접을받아왔다.

로마노프는 여러개의 이름을 사용해왔는데 말레이지아내무성은 [illegible]

[illegible]

발과 부채



中伏이다. 三伏더위라 일러오니 더운것은 당연하다해도 불볕더위가 1주일이나 계속이되니 어디를가나 더위 타령이다.

바닷가라서 시원하리라 짐작이 되던 포항이 18일 36도로서 더위로 이름있는 대구의35도1분을 앞질렀고 전국이 30도를 모두 웃돌아 이상폭염이 아닌가 하는 의념도 일부에는 있는것 같다.

그런데 중앙관상대에서는 전형적인 여름날씨요 또 농사를 위해서는 가장 바람직스러운 날씨라니 풍년을 위하는 일이라면 참고 견디는데도 훨씬 마음이 가볍다.

그것도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여름의 더위를 잊게했던 우리고유의 부채와 대발이 지니는 淸凉을 연상하면서 소하의 방도로 삼아 보는게 더 좋을 것이다.

대청에 자리를 깔고 주녀름에 구운발을 드리워 놓고 풀에 시원스레 끼쳐어 부채질로 찬바람을 청하던 정경은 생각만으로도 一陣의 淸風을 마음에 불러들인다. 새로핀 파란 대를 곱게 다듬어서 붉게 또는 희색으로 물들인 염주실로 거북무늬를 놓으면서 엮어 걸면 경은 마치 비단과 같고 그 발너머로 보이는 바깥의 뫼앗벌은 대나무 푸른 빛으로 어른거려서 흡사 시원한 물속을 보는듯한 착각에 사로잡히게 한다.

그에보태서 태극선이나 팔덕선 파초선 원선 오엽선등 여러가지 생김새의 부채로 부채질을 하면 아무리 찌는듯한 더위도 서늘하게 비켜서지 않을수 없다.

그런데 근자에는 구운발도 부채도 다 보기조차 어렵게되었고 그것을 만들던 전통적인 기법마저 차츰 자취를 감추려한다.

대발 대신에 블라인드 아니면 커튼이요 부채대신에 선풍기나 쿨러가 행세를 하면서 대발이나 부채는 뒷전이 되고 이로인한 수요의 격감은 공급의 필요를 제한하여 마침내 일손까지 놓게하였다.

자연의 조건을 차단하고 기계의 힘으로 얻는 서늘함과 자연의 숨결 속에서 자연의 조건에 걸맞게 대발과 부채로 얻어진 자연스런 凉感의 차이는 바로 현대문명과 전통문화의 격차로 대비되기도 하여 새삼 흥미롭다.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등

특별대매출, 월부판매 알선

●동부 : 255 MORNINGSIDE AV. 282-2820

●서부 :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A. E. LEPAGE 부동산

투자가의 이익을 보장하는

A.E. LEPAGE

각종주택 투자관리
각종점포 매매알선
대지및 상가 대출안내

1174 ALBION RD. at ISLINGTON

B) 741-9170

R) 851-4717

DOUGI WOO 우 덕 이

거 구 장

— 특 별 메 뉴 —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피티, 동창회 피로연

영업시간 : 11A.M. — 밤12시까지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곽 정 철, 김 선 남

PENDEX OFFICE PRODUCTS LTD.

Business Machines Stationery & Office

전자 CASH REGISTER할인판매

*기타취급품목

●각종 CABINET책상, ●사무용 학생용 타자기,

●각종 종이 테이프

FREE DEMONSTRATION 김 성 수

1436 QUEEN ST. WEST

☎ : 532-0111, 259-5820(R)

KYOTO JAPANESE RESTAURANT

신장개업, 다양한 일본의 정통음식

뎀뿌라, 스시, 스끼야끼.

예약은 755-3010

영업시간 : 화~금 점심 12~2 : 30, 저녁 5~10 : 00

토~일 5~10 : 00(월요일 휴업)

주 소 : 1067 Midland Ave. Scarboro North of Eglington(오리올플라자내 무료 주차장)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MASA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863-9519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원 맞은편.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전화 : (416) 222-9480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도의 중국음식 쌩칫, 가므에 담아서 원하는대로 씨위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 월~일 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Spadina코너)

☎ : 977-3142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短身의 變幻공격… 13회에 소나기펀치
金煥珍, 世界王座 뺏어
플로레스에 KO勝
初盤부터 치고빠지는 적극作戰
12회까지 審判모두 採點도 우세

WBA J플라이級 타이틀戰

【大邱=金在契기자】 金煥珍이 우리나라 10번째 세계챔피언이 됐다。키1m55의 단신프로복서 金煥珍(26)은 19일밤 大邱경북 실내체육관서 벌어진 WBA(세계권투협회)주니어플라이급 타이틀매치에서 챔피언 메드로·플로레스(30·멕시코)를 13회1분51초만에 KO로 물리치고 세계王座에 올라섰다。WBA 1위인 金은 기민한 선제공격과 플로레스의 예기(銳氣)를 꺾는 변환(變幻)복싱으로 중반까지 2~3점차로 리드해 나가다가 13라운드서 소나기 펀치로 승기를 잡고 맹렬히 몰아붙여 KO승을 끌어냈다。

찰스·하세트주심(미국)은 플로레스가 복부와 안면을 연타당해 중립로프에 기댄채 그로기상태에 빠지자 경기를 중단, 카운트 없이 金의 KO승을 선언했다。링 사이드의 일부관중들은 플로레스가 로프 다운된 상태였으므로 주심이 카운트를 한후 판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하세트주심은 자신의 판단에 조그만 잘못도 없었다고 밝혔다。12회까지 심판3명의 채점표는 115-114(하세트), 116-114(다니엘), 117-115(우루나가)로 3명모두 金의 우세였다。

金은 이날의 승리로 77년 6월 프로전향이래 19승(8KO) 2무승부의 전적을 기록했으며 금년3월 日本의 구시껜·요꼬(具志堅用高)를 12회KO로 물리쳐 매스컴의 화제를 모았던 플로레스는 첫 타이틀 방어전서 침몰했다。

金은 앞으로 75일이내에 한국에서 日本선수와 1차방어전을 벌일 예정이다。

變幻복싱이 적중한 한판이었다。물러나는듯 하다가 갑자기 달려들어 좌우 훅을 던지고, 머리를 숙인채 파고들어 플로레스의 시야를 어지럽힌 전법이었다。경기시작 전 플로레스 캠프에서는 金이 치고빠지는 소극적작전을 펼칠것으로 예상했으나 金은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여 공격의 주도권을 잡았으며 2라운드서 교묘한 버팅으로 플로레스의 왼쪽눈썹근처에 상처를 만들었다。버팅에의한 상처는 권투경기에서 흔한장면이지만 이날의 버팅은 승패의 분기점이 되었다。왼쪽 눈썹근처에 길이2cm、그위쪽으로 4cm가량의 깊은 상처를입은 플로레스는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괴로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안면은 피로 얼룩졌다。

체중조절에 실패하여 한계체중(48.9kg)에 9백그램이나 미달된 플로레스는 10라운드부터 혼신의힘을 다해 예리한 스트레이트로 실점을 만회, 11、12라운드서 계속 리드했다。그러나 13라운드에 접어들자 웅크려있던 金이 갑자기 폭발, 플로레스의 몸통과 안면에 소나기펀치를 퍼부어 완전히 전세를 역전시켰다。

◆金煥珍의 말＝3년동안 기다려온 세계王座에 성공하여 말할수없이 기쁘다。처음 15회전을 뛰게되어 체력과 스태미너를 기르는 연습을 많이 했으며 충실한 연습을 했다고 자부한다。13라운드서는 여기서 결판을 내야 한다는 기분으로 온힘을 다해 밀어붙였다。날씨가 무더워 체력소모가 심했다。앞으로 펀치력을 기르는 훈련을 쌓고 체력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

全大統領 축전보내

全斗煥 대통령은 19일 세계권투협회(WBA)주니어·플라이급 선수권을 차지한 金煥珍선수와 미국 오하이오州에서 열린 제1회세계청소년 야구대회에서 우승한 한국야구팀에게 각각 축전을 보내 치하 격려했다。

◇감격한「王者」 13회의 순간, 13라운드 중반 찰스·하세트주심이 金煥珍의 KO승을 선언하자 金이 매트에 무릎을꿇고 감격에 넘쳐 울먹이고있다。【大邱=張啓文기자】

◇左右連打공격 4라운드서 金煥珍(右)이 머리를숙인 플로레스를 좌우 훅으로 가격하고있다。金은 13라운드서 소나기 펀치로 몰아붙여KO승을 거두었다。【大邱=張啓文기자】

코미디언 志望 무작정上京 少年이…
勝算비관에 "錯覺은 자유다" 蔚珍서 성장 한때 俳優수업
IQ138、바둑아마3단、뛰어난 유머

IQ138、바둑 아마3단。金煥珍은 거치른 권투세계에서 별난선수로 부각돼있다。키1m55、기계체조로 다듬은 체격이 우람하다。「작은고추가 맵다」는 속담처럼 링위에서는 번치에능하고 파이팅이 좋은선수로 정평이나있다。펀치력이 약한게 흠이지만 이 약점을 재치있는 게임운영과 임기응변으로 극복、77년6월 프로데뷔이래 무패가도를 달린끝에 세계정상에 올라섰다。

『바둑에 大馬不死라는 말이 있지만 권투에서는 不死身은 존재하지 않는다는게 제생각 입니다』 플로레스와의 타이틀 매치를 앞두고 일부에서 비관적인 전망을 내리자 金은 『착각은 자유다。두고보면 알것이다』며 가볍게 빗나갔다。번득이는 재치、유머 감각은 「작은 알린」를 연상 시킬만하다。

金은 79년부터 WBA 랭킹1위에 올라 세계도전기회를 잡았으나 번번히 유산、한때 「만년 세계1위」라는 별명을 들으며 실의에 빠지기도 했다。그러나 조금도 좌절않고 스승인 金賢治 동아체육관장과함께 때가 오기를 기다렸으며 육체미 체육관을 드나들며 울적한 기분을 달랬다는것。

55년 6월25일생。馬山서 태어난 金은 월포국민학교에 다니다가 10살때 경북蔚珍으로 이사、그곳 후포중을 거쳐 72년 후포고교를졸업했다。코미디언이 되겠다는 꿈을안고 73년 무작정상경、회계로의 배우학원에서 6개월간 배우수업을 받기도했다。金은 배우학원서 실망을느껴 74년4월 복싱으로 전향、2년간의 아마생활에서 29승5패를 기록하고 77년6월 프로무대에 뛰어들었다。

한때 馬山서 기원을경영했다는 아버지(金相燁씨·59)는 아들을 프로기사로 출세시킬꿈을 가졌으나 金이바둑보다는 시골극장 쇼단의공연에 더 관심을갖는 바람에 포기했다는것。현재는 여동생(沙姬·24)과 함께 반포경남아파트 1동1003호에 살고있으며 아버지와 형、동생은 釜山에있다。【契】

企銀、宅銀과 비겨 金融團축구B조

企業銀行은 20일 효창운동장서 벌어진 대통령배쟁탈금융단 축구대회 B조경기서 住宅銀行과 1-1로 비겨 1승1무를 기록했다。

◇제4일·전적
▲B조
기업은행 1 (0-1, 1-0) 1 주택은행
(2승1무) (1무1패)

◇제3일 전적
▲A조
제일은 1-0 조흥은
(1승1패) (2패)
한일은 1-1 국민은
(1승1무) (1승1무)

東亞建設팀 우승 種別탁구 여단체

【麗水=方錫崗기자】동아건설이 제27회 종별탁구선수권대회 최종일(19일·여수고체) 여자일반 단체결승에서 강호 제일모직과 5시간반동안의 대접전끝에 4-3으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이대회2연패의 영광을안았다。

◇최종일전적
▲여일반단체결승
동아건설 4-3 제일모직
▲동 준결승
동아건설 4-2 서울신탁
제일모직 4-3 산업은행
▲남고개인단식결승
朴昌益(신진공) 기권 洪膺敝(대만)
▲동 여고부
金貞美(시온) 2-0 朴末粉(근화)

景福·成德女商패권 전국고교 농구

명문景福高와 신생 成德女商이 19일 장충체육관에서 끝난 제13회 대통령기쟁탈 전국남녀고교농구대회에서 우승했다。대회최종일결승전서 景福은 光新商을 75-68、成德은 崇義를 45-41로 물리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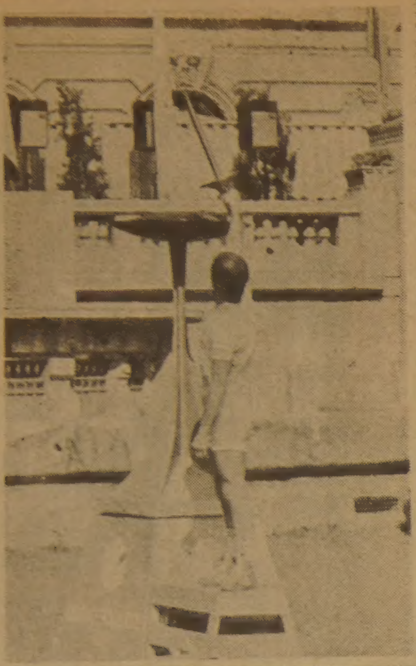
景福은 이로써 지난해에이어 2連覇(통산4번째)를 춘계연맹전에이어 올시즌전국대회 2관왕에 올랐다。창단 2년째의 成德女商은 처음정상에 올랐다。

이날 金光皓(경복)와 趙文珠(성덕)는 최우수상을 받았다。

◇최종일 전적
▲남고결승
경복 75 (33-32, 42-36) 68 광신상
▲여고결승
성덕 45 (26-24, 19-17) 41 숭의여고

◇개인상
▲최우수＝金光皓(경복) 趙文珠(성덕) ▲우수＝鄭敏(광신상) 趙聖淑(숭의) ▲감투＝金龍鎬(광신상) ... ▲미기＝... 金玉姬(상명) ▲감독＝鄭德和(숭의) ...

U大會 루마니아서 開幕
부쿠레슈티서 73개국 4千5百參加



◇聖火 점화 루마니아의 레슬링선수권자 이온·알렉산드루가 19일 81년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막식에서 성화대에 점화하고있다。【부쿠레슈티19日AP＝聯合】

【부쿠레슈티＝楊森 특파원】세계대학생들의 스포츠 잔치인 제11회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가 19일밤 10시30분(이하한국시간) 루마니아의 부쿠레슈티 8·23스타디아에서 개막、11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한국을 비롯한 73개국 4천5백여 인원·선수들이 참가한 이번대회 개회식에는 후앙·안토니오·사마란치IOC위원장、차우세스쿠 루마니아 대통령을 비롯 曺相鎬 대한체육회장등 각국 NOC위원장·체육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한국선수단은 광고에 이어 16번째로 코리아의 표지판과 태극기를 앞세우고 입장、6

世界청소년 野球
한국、美눌러 우승
宣銅烈 최우수投手뽑혀

【뉴어크美(오하이오州)＝李鍾南특파원】한국 청소년 야구가 본고장 美國을 누르고 우승했다。한국은 19일상오2시와 9시(이하 한국시간) 연달아 뉴어크 돈에드워즈구장에서 열린 제1회 세계청소년야구대회 결승 1、2차전에서 3-1、3-2로 美國을 연파、이번대회서 전승기록을 세우고 패권을잡았다。

11개국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A·B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벌인뒤 A조수위한국과 B조수위 美國이 3전2선승제의 결승 시리즈를벌였다。한편 이번대회에서호투를 보인 宣銅烈은 미국의 토드·번즈와 함께 최우수선수로 선정됐으며 金健友투수도 올스타팀의 투수로 뽑혔다。金相國포수는 감투상을 받았다。

◇결승1차전

한국	001	000	200	3
미국	000	001	000	1

▲홈런＝동바디(6회말)

◇결승2차전

미국	000	002	000	2
한국	000	010	101	3

한국代表팀 美大學 야구팀에 패배

월드게임출전을 앞둔 韓國야구대표팀이 7대4로 역전패당해 월드게임 우승전망을 어둡게 했다。韓國팀은 19일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진 친선경기에서 구원투수 崔東原이 홈런3개를 얻어맞은데다 주전들의 타격마저 부진、역전패했다。

◇전적

美대학선발	000	200	113	7
韓國대표	101	001	001	4

實業배구 남자부
綜合化學·韓電 쟁패

【釜山＝李洪烈기자】綜合化學이 通信校를꺾고 韓國電力과 81년도 제2차 전국남녀실업배구연맹전 남자부 패권을 다투게 됐다。綜合化學은 20일 이곳 九德체육관에서 속행된 대회 5일째 남자부경기에서 通信校를 3-1로 제압、전날 通信校를 3-1로누른 韓國電力과같이 1승을 기록、22일 격돌케됐다。通信校는 2패로 일정을 모두 끝내고 최하위인 3위로 처졌다。

노장군단 종합화학은 경기초반 통신교의 파이팅에 눌려 첫세트를 빼앗겼으나 2세트이후 노련미를 발휘、2시간6분만에 3-1로 역전에 성공했다。

◇제5일전적
▲남자부리그
종합화학 3 (13-15, 15-6, 15-8, 15-13) 1 통신교
(1승) (2패)

◇제4일전적
▲여자A조
석유공사 3 (15-5, 15-8, 15-7) 0 효성
▲남자부
한국전력 3 (15-5, 10-15, 15-9, 15-9) 1 통신교
(1승) (1패)
▲동B조
현대 3 (16-14, 15-3, 15-6) 0 후지필름
(3승) (1승2패)
▲동순위＝①미도파 3승 ②유공 2승1패 ③선경 1승2패 ④효성 3패

日、統一한국 中立化바라
50年代 國交정상화 늦춰

【워싱턴19日＝聯合】일본정부는 지난 50년대 한일국교정상화회담의 상대로 당시의 李承晩대통령정부보다 『통일된 중립정부』와의 협상이보다용이할 것으로 판단、이를 고의로 지연시킨 것으로 최근 공개된 제네바회의비밀서류에서 밝혀졌다。

지난 50년대 주일미국대사로 재임했던 존·앨리슨씨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일본이 북한공산주의자들의 대남침투와 한반도장악이라는 가상의 상황보다도 공산주의자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李承晩정부의 부패와 비능률에 더큰 우려를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54년4월10일 작성된 이 보고서는 또 그당시 일본정부고위인사들 가운데 한반도가 통일되고 한반도문제가 해결되리라는 기대를가진 사람은 거의없었지만 한반도의 장래문제에 상당한관심을 쏟았다고 말했다。

한국 反日감정紹介
朝日신문 特輯게재

【東京20日＝聯合】일본의 유력한 일간지 아사히(朝日)신문은 20일자 조간에 「서울81여름」이라는 제하의 대대적인 한국특집기사를 게재、한국사회의 이모저모와 한국의 반일감정문제를소개했다。

외신면 한페이지전면을 할애한 이특집기사는 현재 한국민의 최대관심은 정치가아니라 생활향상과 경기회복이라고 전하면서 일반서민대중의 생활모습과 대학가의 분위기등을 소개하고 「모두가 금년만 참고 극복해나가면 한국경제가 잘될것으로 기대를 걸고있다」고 말했다。

崔德新 平壤떠나

美國에 체류중인 前天道敎領 崔德新이 장기간의 北傀방문일정을 마치고 지난18일 平壤을 떠났다고 北傀의중앙放送이 19일 보도했다。【서울＝聯】

聯合通信·印PTI 뉴스交換계약 締結

【서울＝聯】聯合通信과 印度 最大通信인 PTI通信은 20일하오 地域및 世界뉴스의 상호취재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뉴스交換계약을 정식체결했다。

서울한의원

- 30어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 대한한의사협회장외 한의학반전공로표창장 10여회 수상.

* 진료과목 : 한방내과 · 신경과 · 부인과 · 침구과 · 산후보약(왕진함)

주소 : 10 Blackfriar Ave. #216 Weston, Ont. (Kipling-Dixon)

한의사 김 장 석

☎ 247-9347

ORIENTAL CASTLE
동궁식당

전통적인
홍콩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무료배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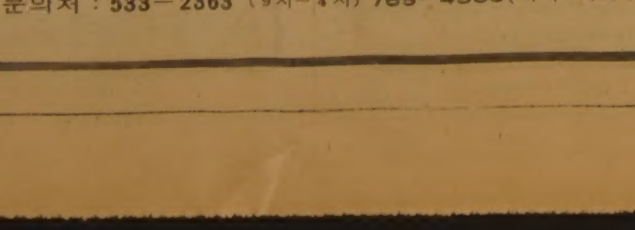
1416 VICTORIA PK. AVE.

☎757·6334

World Book-Childcraft of Canada

아직도 World Book 을 구입 못하셨읍니까?
World Book 은 북미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백과사전의 하나이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과정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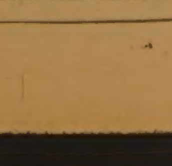
★29,000이상의 사진, 그림, 지도및 차트 포함
★어린이를 위한 Special Volume "Child Craft"



문의처 : 533-2363 (9시-4시) 769-4366(저녁7시이후)

주간女性

외딴섬서 한 家族이 5代째 산다
—최소 國校도 있는 光島의「호젓한 幸福」



〈탤런트 李慧珍〉

日바둑 2冠王 趙治勳 전부인
새「타잔」映畵 외설是非 한창
늘어나는 離婚 부부 문젯점

논픽션 제임즈·딘 ㊤

코치된 朱喜鳳의「푸른設計」
선수촌 白衣天使 柳順德씨
테마特輯「오해」副作用 분석

人氣 연예인들의 極秘 바캉스 계획 公開

미국에 裸體族만 사는 맨션 아파트 등장

밤낮없는 忠州댐 大役事

忠州市 宗民洞~中原郡 東良面 早洞里일대

國內最大 85년完工

重機정비공장·江물빼는 배수터널

국내 최대규모의 忠州다목적댐 공사현장. 미동국자부 취재팀이 계곡중턱에 올라섰을 때 「꽝」하는 폭음이 계곡을 뒤흔들었다. 굉음과 함께 바위조각들이 수백m까지 날아왔고 흙먼지가 계곡을 뒤덮는다. 본댐이 들어설 계곡의 산을 깎는 발파작업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시작된 것이다.

산중턱의 단단한 모암이나 타날때까지 바위를 깎아내는 발파작업은 계속된다. 뒤이어 콤프레서 페이로더 포크레인 불도저등 중장비가 요란한소리와함께 부산히 움직이고 보통트럭의 2~4배나 되는 대형트럭들이 줄지어 질주하기 시작한다.

점심식사후 휴식을끝낸 5~6백명의 작업 반원들이 모두 헬멧을쓰고 10개공구현장으로 속속 올라온다. 사람이나 대형중장비들은 대역사의 현장에선 눈에가물거리듯 작게만 보인다. 하루 1천7백여명의 작업반원들과 3백여대의 중장비들이 3교대로 24시간 밤낮없이 산을깨고 토석을실어내고 물줄기를 가르는 공사를 계속하고있다.

남한강유역종합개발을 위한 忠州다목적댐은 忠州市宗民洞~中原郡東良面早洞里사이 계곡의 강물을 가로막는 거대한 댐 (높이97.5m·길이4백64m)을 건설하는것.

지난해 1월10일 기공식을 가진후 5개월동안 진입도로 및 방대한 공사현장의 도로개설작업을 했고 상주인구 7백여명이 숙식할수있는 기숙사신축, 그리고 15~32톤급 대형트럭90대를 비롯 콤프레서 페이로더 포크레인 불도저등 각종 중장비3백여대를 정비할수있는 중기공장이 건설됐다.

산을 깎고 터널을 파고 도로개설을 위해 실어나른 흙과 자갈만도 4백80만루베 (8톤트럭 72만대분), 하루 운반량은 1만8천루베(28만8천톤). 이토석들을 보관하기위해 계곡곳곳에 3만여평의 사토장까지 닦았다.

그리고 본댐축조공사를 위해 강물을 돌려빼기위해 산을 관통하는 2개의 원형 배수터널 (직경12m·연장6백70m) 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있어 오는 9월부터는 강줄기가 돌려진다. 지금은 댐공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본댐이 들어설 계곡양안의 바위를 깎는「랜드슬라이딩」이 한창이다. 산의 운모석(금이 가고 부서지기 쉬운바위)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이다.

댐이, 가상할수있는 홍수(1만년의 빈도)와 지진(통상설계지진계수0.5의 2배인0.1)에 견디어 낼 수있도록 건설하기 위한것. 본댐축조공사를 효율적으로 하기위해 케이블크레인탑(높이67m)의 설치공사도 진행중이다. 이케이블크레인은 믹서된 콘크리트를 공중으로 운반하게된다. 이와함께 콘크리트생산공장 골재생산공장 철근공장건설도 병행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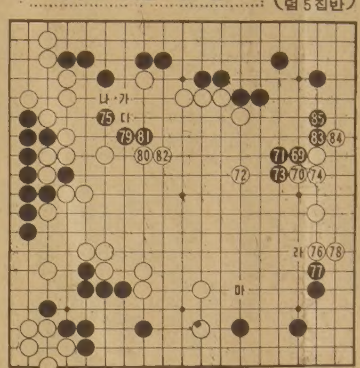
공사현장을 지휘하던 작업소장 李庭滿씨(44·현대건설)는『기술진들이 하루 18시간씩의 작업에 묻혀살고 5년이란 장기공사를 위해 가정생활의 희생을 감수하고있다』며『모두들 거대한 사업이 성취된후 맛보는 희열때문에 고생을 이겨나가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내외자 3천3백70억원이 투입되는 忠州댐은 오는85년5월완공되면 96만7천평방m의 거대한 인공호수가 탄생되고 27억5천만톤의 물을저장하게된다. 大淸댐(저수용량13억톤)의 2배를 능가하는양이다.

구독신청 533-2361

제12기 名人戰 挑戰5番棋

第3局 第5譜 69~85 (갈5시간 덤5집반)



白 (挑戰者) 徐奉洙〈1勝1敗〉
黑 (名人) 曺薰鉉〈1勝1敗〉

이바둑이 異色的인 까닭은 名人과 도전자가 서로를 상대의 능기를 대신하여 두고있는것 같은 양상인 때문이다. 黑이 도처에 실리를 알뜰하게 차지하고 白은 중앙의 망망대해로 一當百을 과시하고 있는것이다.

이윽고 名人은 17분을 장고한 끝에 黑69로 우변白에「박치기」를 했다. 중앙을 삭감하기에 앞서 좌우간 이쪽 白에 트집을 잡아볼 일이다. 그래서 69는 하나의 포인트였던 것이다.

白70에 젖히고 이하 黑73까지 일사천리. 도중 白72가 중앙을 확보하는 요소였다. 그런데 黑이 75쪽을 일단 뛰어들어갔을 때 우변을 白76으로 한칸뛴수가 이상했다는 평이다. 검토실에서도 黑75를 예상하고 이에 대해서는 白「가」黑「나」白「다」로 막아버리는것을 최선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黑, 분주한 삭감작전

그러니까 白76은 엉뚱하다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黑77에는 白78 (이수는 白「라」보다 강력하다)이 필요한때문에 당장에 黑79이하81. 그토록 웅대했던 중앙의한쪽이 졸지에 커다랗게 줄어버리고 말았다.

도전자도 사실은 여기까지 삭감을 줄은 짐작했을지모르지만 막상 당하고보니 적지않은 손실을 입었다. 名人은 한시름 놓더니 黑83으로 미해결지인 우변을 막았다. 국후평에서는 83을 현실적인 수라면서도 오히려 우하측을 黑「마」로 뛰는편에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저러나 黑85까지의 결과는 중앙白이 30집정도라면 계가바둑. 즉 말해서 형세는 박상막하라고한다. 자, 白은 어떻게 중앙을 최대한 확보할것인가. 【一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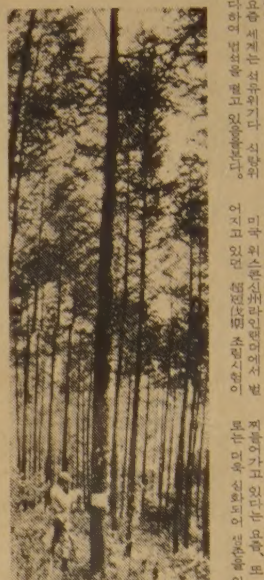
나의 이력서

〈題字·玄信圭〉

玄信圭 ㉗

나무는 속이지않는다

해방후 2백억株 植樹…山林國못돼 恨



◇산림은 國富의 상징. 樹木은 속일수 없는 나무에 투자할 가치가 충분함을 배워왔다.

산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침이 없다. 이는 내가 평생을걸고 몸담아온 한분야에서 더욱 … 렇게 믿지않고서야 모든 나라들이 나무를 심겠다고 서둘 이유가 없을 것이다.

요즘 세계는 석유위기다 식량위기다하여 법석을 떨고 있음을본다.

한 진실이고 세계를 돌아보며 얻은 인식이며 그들 국가들이 확인해준 사실이다.

산림의 중요성은 아무리 늦게 깨달았다하더라도 결코 늦음이 있을 수없다. 이것도 내가 터득한 진실이고 세계가 확인해준 사실이다. 그러기에대한 대처의식도 높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기에 초비상의 노력을 쏟고 있음도 알고있다. 그에 못지않게 목재자원위기도 거의 눈앞에 다가오고있음을 우리는 예감할수있다.

더우기 우리나라엔 자원이 없는데 공감하고 있다. 오직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면 人力과 산림자원뿐이다.

우리나라에서 산림이 강조되고 나무에서 눈을 뗄 수 없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할 것이다. 특히 산림은 목재자원 뿐 아니라 후생적 공익적 기능, 더나아가서 대체 에너지원으로까지 가치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미국 위스콘신州라인랜더에서 벌어지고 있던 조림시험이 대체 에너지개발에 서광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캐나다의 터론토부근에서도 희망적인 실험이 계속되고있다.

공산국에서 탈출했다는 그곳 주파바사도 밀식 초단벌기 재배를 하고 있었다. 이탈리아포플러를심어 펄프를 생산해내는 일은 물론 잎으로는 가축사료를 생산한다. 이제는 이보다 액체연료를 생산하는 실험에 열을 쏟고 있다.

이실험과 연적의 중요성이 평가되어 그는 IAE(국제에너지기구)의 임목에너지그룹의 책임자가 되어있다. 결코 남의나라 일이라고 눈을 돌려버릴수는 없다.

공기와 바다와 물이 오염 공해로 찌들어가고 있다는 요즘, 또 앞으로는 더욱 심화되어 생존을 위협하는 단계에까지 이를 것이라는 예고가 잔단없이 나오는 판에 日本의경우 산림의 후생적 공익적 가치생산액이 전체산림을 값으로 환산한 것보다 12배나 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로 암시하는바가 크다.

28년전 독일에서 스테판러바사에게서 들은『벌채지, 저건 야만인 영국인이 벤거야』라는 호통소리가

"산푸르고 못사는 나라없다"… 投資가치 充分

지금도 내귀가에 쟁쟁하다. 양대전쟁기자에 목재가없어 곤혹을 치렀던 영국이 목장을 파헤쳐 다시 조림을하여 산림복구에 나선것은 무서운 독일만큼이나 저력있는 노국의 결단을 의미 한다.

우리나라는 해방후 2백여그루가깝게 나무를 심었을 것이다. 이것만 제대로 자랐어도 벌써 산림국이 되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아직도 그렇지 못한것은 조림에대한 의식의 차이때문이다.

기술 인내 투자(돈) 행운(기운)이라고 밝히며 내게 배워가기를 권하던 독일의 조림원칙을 다시 짚어보고 싶다. 이는 그들의 성공의 비결이라 할수도 있다. 여기 4가지에 나는 하나더 조림의욕을 덧붙여 우리의 조림원칙으로 삼았으면한다.

산림은 國勢와 비례한다는 선진국의 경험을 우리의 경험으로 받아들여야 할것 같다. 산이 푸르고서 못사는 나라없고 산이 황폐하고서 잘사는 나라 보지못했다.

이「공식」을 우리나라에 적용시켜 보면 우리는 지금 잘사는나라로 갈림길에 서 있음이 분명하다. 晩覺이라해서 서두를 일은 아니다. 빨리 도달하기위한 지름길은 위험하기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육종된 나무가 지금 외국서도 빛을보고있다. 그들이 한국의 조림을보고 경탄하기도한다.

나무는 적어도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는 사실위에 바탕을 둔다면 투자할 가치는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이다.

꽃도매상
437 CARLAW ST.
☎: 465-8167

비둘기사진 식자인쇄소
고급 인쇄를 원하시면 사진식자가 있는 비둘기 인쇄소를 찾으세요.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 493-8894 윤 종 대

流星의 賦 〈136〉

李炳注 作
李友範 畫

亡兆의 日月 ㉒

일금과 이이의 응수(應酬)를 보고있던 삼사(三司)는 발끈했다. 대사간 송응개, 헌납(獻納) 유영경, 정언 정숙남, 대사헌 이기(李墍), 집의(執義) 홍여순(洪汝諄), 장령 이징(李徵), 부제학 권덕여(權德輿), 전한 허봉(許篈) 등이 그 대표였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임금께 아뢰었다.

『이이는 갑자기 높은 자리에 승진했으면 마땅히 두려워 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거늘 군정(軍政)의 중한 일을 미리 알려 의논하는 법도 없이 독단으로 시행하였고, 내병조에 까지 들어왔음에도 임금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병권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등, 임금님을 업신여긴 죄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에 대간(臺諫)들은 그 사실에 의거하여 논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이로선 마땅히 자신의 허물을 반성해야 할 것이어늘, 그는 남의 심하고 시기하여 심히 분해하고 원망하고있습니다. 그리고는 대간들이 말을 날조한 것으로 만들려고, 전하에게 좌우의 여러 관원들에게 물어서 죄의 경중을 따져 줍시사 하는 청을 하게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이가 승부를 결단하자고 나선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는 사실을 우리하게 변명하고, 자기의 허물을 말하는 자를 위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금님의 신임을 이용하여 대간들을 억제하려는 저의가 명백합니다. 사심이 충명하고 있는 일인데 그것을 구한 언변으로 호지부지 하려는 태도는 용서할 수 없으며 게다가 대간들을 무시하는 태도 또한 용서할 수 없습니다. 파직시키기 바라옵니다』

임금은 그들의 제의를 각하하자 또 다음과 같은 상소가 들어왔다.

『병조판서 이이는 글자나 아는 것으로 하여 궁위(宮闈)를 뛰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 의견만을 고집하였으니 어찌 공론(公論)의 발동이 없겠습니까. 우선 군인의 일로 말씀드리더라도 큰 작전 아뢴 후에 명을 받아 시행해야 하는 것이어늘 궁권의 지척에서 말(馬)을 헌납하라는 영을 먼저 내려놓고 나중에 임금님께 아뢰었으니 이것은 나라의 권력을 마음대로 한것 입니다. 또 평소와 같이 출입하고 있었고 중한 병이 있다고 듣지 못했는데 전하의 부르심에 대하여 교만스럽게도 응하지 않았으니 이건 군부(君父)를 업신여긴 처사입니다. 따라서 대간이 파직을 청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붓과 혀를 놀려 극력 공론과 싸웠으니, 첫째는 오랫동안 시론(時論)에 거슬렸고, 둘째는 구한 변명으로 전하의 마음을 괴롭혔고, 셋째로 세상에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고 대간을 희롱하였음이니다. 범저(范雎)가 왕안석(王安石)을 두고『아래를막고 위를 가리워서 그 사심(私心)을 부린다』고 했는데 그와 저의 가깝습니다. 혹은 이이를 왕안석과 비기기로 하니, 안석의 문장과 절행이 어찌 이에 비할 것이겠읍니까만 안석의 거만하고 임금을 업신여긴 마음과, 안석이 임금의 신임을 굳건히 하고서 임금을 이용하려던 마음을 이이가 가졌고, 안석이 사람들을 배척하는 마음을 가졌으니 후일의 화란이 어떻게 될지 몰라 심히 두려워 하는 바입니다. 단연 이이를 물리쳐 주옵소서』

모눈종이 위의 生 〈153〉

趙善 作
禹慶熙 畵

그림자놀이 ㉜

그날 밤 나는 정통으로 잣다. 새로 산 레디 메이드의 양회색 투피스로 정장을 하고 신발은 가벼운 세미슈즈를 신었다. 아런 일을 예상하고 그랬던 것이다. 내가 진작에 그런 옷과 신발을 준비해두었던 것이다. 가야회색의 투피스와 또 비슷한 색의 신발을 준비한 것은 그것이 어둠의 색깔과 닮았기 때문이었다. 밤길로의 침입은 아무래도 밤이어야만 했고, 그러자면 어둠 속에서 도드러나지 않는 색깔의 의상이 어울릴 것이기 때문이었다.

밤이 깊어진 산은 적막했다. 나는 발밑에 밟히는 낙엽소리에도 신경을 곤두세우며 오솔길을 걸어 그의 방갈로 근처에 도착했다. 과연 한곳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아마 그것은 석유램프였다. 아니면 촛불이리라. 전기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은 …

노영지에게 들어 알고 있었던 일이었고, 창문에 비친 밝기의 정도가 그쯤이었던 것이다.

나는 불켜진 산장의 주변을 멀리 한바퀴 돌았다. 그리고 키높은 낙엽송이 그늘을 만들고있는 어둠속에 자그마한 바위 하나에 걸터앉았다.

아 기다릴 셈이었다. 내가 나는 그곳에 그렇게 걸터앉아 그가 불을 끄고 잠들기까지 기다려야 했다 …

종교서관
535-1920
●기독교및 일반서적
●성가및 설교테이프
●각종선물 용품, 백과사전(월드북)
월~토 오전10시30분~오후7시
714 BLOOR ST. W

교 회 안 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3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30 오후 2:00 영어설교 오후 1:00 금요저녁 9: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고신장로교회	최사철	오후예배 1:00 성경공부 2:30	148 Thornridge Dr Thornhill	241-4546
대한교회	강근환	주일오후 1:30	3819 Bloor St.W.	741-5411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토요집회 오후2시 평일기도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 Tor.	698-5363
동부한인장로	홍순관	대 예 배 오전11시 영어예배 12:30분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 6:30 주일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8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장희선	주일낮 11시 주일찬양예배7시 수요예배 8시 주일새벽기도회6시	135 Briscoe st. E.	686-6302 전화선교 439-6331
런던한인교회		주일대예배11:00 주일저녁예배7:30 금요기도 밤10시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미시사가연합	유환진	주일오후 2:00 학생영어예배 오후 1:30	2500 Mimosa Row 미시사가	278-5163 277-2894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30 성경공부 2:40 토요기도 밤7시	2840 Weston Rd. at Albion	241-2544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 7:00 주일오후 1시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 장로	김경진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00	7 Gretna Ave. (Victoria Pk. & Lawrence)	423-9324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중고등 영어 오후1시 수요새벽5시30분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925-8525
새한장로교회	귀상호	주일오후 2:00 토요오전 7:00	105 Wilson Ave.	482-4577 633-3132
서머나감리교회	김욱희 전도사	주일오후 2:00 수요예배 7:30	675 Sheppard Av.E.	752-9727 752-9860
선교교회	안상엽	주일 낮12:30 저녁 7:00	1 Greenland Rd. (Donmills)	444-8002 444-4011 (기쁜소리)
성도교회	김용진, 정춘수	주일오후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순복음교회	이필주	주일오후 2:00 금요기도회8: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오후 1:30 4:00 수요오후 7:30	65 Mayall Ave., Downsview	977-5202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00	98 Finch Ave.W.	225-4430 665-2866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30 수요저녁 7:30 금요저녁10:30	126 O'conner Dr. at Pape-Ave.	423-8400 423-9880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00 금요오후 8: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조창환	수요저녁7:30 일요오후2:3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 자유감리교회	여용순	오전11시	2385 Warden Ave.	444-8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용출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30	963 Pharmacy Ave.	생명의전화 755-9766 755-1528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630-4284
중앙장로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8:00	502 Bathurst	전화설교 961-8361
천주교회	고종욱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83 Power St. Tor.	863-0415
침례교회	홍신용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8: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00 주일오후 4:30 금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281-7772 245-1687
키치너·워터루 한인교회	임인환	주일오후1:30	54 Queen St.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교회	유재신	주일오전11:00 낮12:30	353 Sherbourne St.	922-3863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00 수요오후 7:30	1183 Davenport Rd.	535-6864 마음의양식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30 예배 3:00 주일학교 3: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땅두릅나무 파종栽培에 成功

전북 全州市 平和농원 朴炯植씨

순·뿌리는藥用…日本서輸入

단백질등 12種 영양분 함유

뿌리로만 번식되는 것으로 알려졌던 땅두릅나무의 파종재배가 성공돼 외화획득의 길이 열렸다.

전북 全州市 平和洞1街 529의2 平和농원 주인 朴炯植씨(43)는 지난 3월초 1천여평의 밭에 땅두릅나무씨를 파종, 4월부터 싹이나기시작해 지금은 40cm까지 키우는데 성공했다.

두릅나무는 산에서 자라는 산두릅과 농가에서 재배, 쉽게 채취할수있는 땅두릅의 2종류.

두릅나무의 어린 순에는 단백질, 당질, 지방질, 칼슘, 철분등 12종의 다양한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재배때 농약이나 비료를사용하지않아도 잘자라 농가의 수익증대와 무공해식품으로서 각광을 받고있다.

특히 이식품은 일본인들에게 크게 인기가 있어 재배하기 바쁘게 일본에서 수입해가는 실정이어서 외화획득에 큰몫을할수도있다.

일본에서는 이나무의 순과 뿌리가 육식에 따른 관절통·풍증·피부미용등 갖가지 효능을 가진 특용식품으로 알려져 있기때문이라는것.

지난해의 경우 순은 1kg에 3천5백원, 한약재로 쓰이는 뿌리는 1근에 2천원씩에 매매되었다.

또 7월부터 1백여일동안 꽃이피는 이나무에는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벌들이 모여들어 양봉에도 적격이라 농민들에게는 1석3조의 이득을가져다준다.

파종에 성공한 朴씨의 경우 체로 친 흙에 땅두릅씨앗을뿌리고 모래를 덮은뒤 생짚을 다시 덮어주는등 정성을 쏟아 발아시켰다고한다.

朴씨는 『산에서 자생하는 산두릅의 경우 다량채취가 어려웠으나 씨앗파종으로 대량재배를할경우 다량채취가 가능해져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수있다』며 많은 농가에서 특용작물로 재배할것을 권장한다. 【全州】

◇朴씨가 파종재배로 싹이나 무성하게 자라고있는 땅두릅나무를 보살피고 있다.

罪없는사람 窃盜혐의 送致

警察 事件조작 "바지 훔쳤다"강제 자백케

【釜山=聯】 폐차처리된 버스에서 하룻밤을 자고나오던 전과자가 경찰에 의해 특수절도혐의로 구속송치돼 10년이상의 보호감호처분을 받을뻔했다가 검찰에 의해 혐의가 풀려 석방됐다.

전과7범인 許모씨(55·부산시 西區 西大新洞1가126)는 지난달 20일 상오8시께 西區忠武洞 대림수산뒤 근로자 대기실용 폐차버스안에서 자기작업복바지를 겨드랑이에 끼고 나오다 부산 西部경찰서 金모순경에게 발견돼 지난달 29일 특수절도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이사건을맡은 釜山지검 金根大검사가 조사한결과 이 바지는 許씨의 것임이 밝혀져 金검사는 20일 許씨에 대한 특수절도부분은 무혐의로 처리하고 건조물침입혐의만 적용, 기소유예 처분해 許씨를 석방했다.

검찰에따르면 경찰은 조서에 許씨가 자백한 사실도 없는데 바지를훔쳤다고 자백한 것으로기록하고 옷을 잃어버리지도 않은 근로자 金모씨(32)가 바지를 잃어버린것으로기재했는가하면보호감호처분의견까지 첨부했었다는것.

구독신청 배달사고 583-2361

忠南紡績에 큰불

大田공장 1명壓死, 20億어치 태워

【大田=朴泰弘기자】 18일밤 11시50분께 충남大德郡杞城面關睢里493 충남방적 大田공장(대표·金炯德·52) 원면보관창고에서 불이나 4천평짜리 창고1동과 보관중이던 원면·화섬등 2백70여만kg을태워 20억7천여만원(경찰추계)의 재산피해를 내고 7시간만인 19일 상오7시20분께 꺼졌다.

이불로 진화작업을 하던 공장직원 徐永九씨(35·가공과)가 창고벽에 깔려 압사하고 鄭永杓씨(26·전기과)등 2명이 중상을 입었다.

불이나자 야간근무중이던 공장직원 3백여명이 자체소방차 2대와 소화기 1백20여개를 동원, 진화작업을 벌였으나 창고안이건조하고 원면이 인화성이 강해 불길을 잡지못했다.

30분뒤 大田소방서와 군소방차 24대가 출동했을때는 창고전체가 이미 화염에 휩싸여 속수무책. 10여m 떨어진 공장건물로 불길이 번지지못하도록 차단한채 스스로 꺼지기를 기다릴수밖에없었다.

불이난 大田공장은 충남방적의 3개공장중 가장규모가 큰것으로 한국화재 보험협회에 5억원의보험에, 창고속 원면등도 30억원의 화재보험에 가입돼있다.

경찰은 이날밤10시 이전에 솜이타는 냄새가 났다는 공장직원 片수형씨(40)의 진술에따라 담배꽁초등에 의한 산화나누전 일것으로보고 정확한확인을 수사중이다.

들이 사전에 입수한 시험지로 시험을 치르다 일부 학생들에게 발각돼 이들이 경찰에 진정함으로써 밝혀졌다.

한편 학교측은 말썽이 나자 징계위원회를 열고 李군등 관련학생 5명에게 무기정학처분을 내렸다.

日도 불볕더위 休日 49명溺死

【東京20日UPI=聯】 근 2주째 30도이상의 불볕더위가 계속되고있는 일본에서는 일요일인 19일 많은 인파들이 물가로 몰려들어 올들어 최고기록인 49명이 익사하고 6명이 실종됐다고 일본경찰이 20일 발표했다.

이밖에 중공·대만·인도네시아등에서는 수일째 계속되는 폭우로 홍수가 발생, 중공에서만도 3천여명이 사망했으며 대만·인도네시아등에서도 각기 수십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李承晩박사 16周忌 國立墓地 추모예배

雩南 李承晩박사 16주기 추모예배가 19일하오3시 銅雀洞 국립묘지내 故李박사묘역에서 거행됐다.

貞洞교회 李在殷목사 집례로 진행된 추모예배에는 미망인 프란체스카여사(82)와 양자 李仁秀씨부부 손자 丙久군(12)등 가족과 許政전 내각수반 申鉉碻전국무총리 丁一權전국회의장 尹致暎씨 白善燁씨 朴東鎭청와대특별보좌관등 친지와 시민 1백58여명이 참석했다.

자취하던 처녀 鈍器맞아 重態

【光州=聯】 13일상오7시20분께 光州市西區白雲洞74의2 李幸子여인(68)집 전세방에서 徐蓮姬양(24)이 둔기로 이마등을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된채 실신해있는것을 주인 李여인이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중태다.

李여인에 따르면 18일밤늦게까지 함께 놀다 자정쯤 각자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밥을 지을시간이 됐는데도 인기척이 없어 방문을 열어보니 徐양이 이마·팔·다리등에 심한 상처를입고 피투성이가 된채 실신해 있었다는것.

◇7시간만에 鎭火 잿더미로 변해버린 원면창고. 1천여명의 공장직원들이 타다남은 솜뭉치를 줍고있다.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畫

"범스테드아저씨, 저 땅콩버터와 젤리를 넣은 샌드위치 한개만 주실까요?"
"물론이지. 아무때라도 줍께, 엘모야"

"그럼 한개가 넘어도 돼요?"
"그렇겠지…몇개나 줄까?"

?

"스물두개요"

김인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W.
☎ : 530-0522(B)
531-4165(R)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
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지렁이 잡이구함(유경험자에 한함)
최고가격 1000마리당 30달러
☎ : 255-0730

좋은 농장, 좋은 골프장
최고대우 1000마리당 25 - 30 달러
☎ : 532-3637 미스타 게

경험있는 지렁이 잡으실분 : 대우좋음
MR. JIM OR NICK 1000마리당 $19~$25
☎ : 531-0474

유경험자 지렁이잡이구함 PETER KOTSISAS
LIVE BAIT 좋은 농장, 승용차로 지렁이 잡으실분
구합니다. 좋은 대우 ☎ : 533-0910 피터

경험있는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
좋은 농장에서 아주 좋은 대우 해 드립니다.
4 계절 계속 있읍니다.
☎ : 465-9929 CALL GEORGE
C & L LIVE BAIT CO.

남녀 초저녁 청소하실분
☎ : 977-1110

경험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
풀, 파트타임
☎ : 742-0800 미스타 차

가게에서 일하실 남자 풀타임 구함 :
하루10시간 근무, BAY + BLOOR지역
☎ : 968-9221

RECEPTIONIST FOR DENTAL OFFICE
EXPERIENCED PREFERRED BUT NOT NECESSARY. MUST BE FLUENT IN ENGLISH & KOREAN.
☎ : 781-9591, 535-2798

매매및 양도

벡커매매
년매상 $300,000이상 + 로타리오
☎ : 783-1984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
주매상 $5000 (Brimortone×Orton Park Dr.)
956 BRIMORTONE DR. SCARB.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61 MAIN ST. 편의한 문의는 직접 내방 바람
☎ : 694-7848

버라이어티 스토아 팝니다 :
주매상 $2800, 렌트 $340, 리스5년, 2층에 2베드룸 : $275
☎ : 635-1038

가게 급매 : 주매상 $4,500, 윗층에 3베드룸 있음
가장 적당한 OFFER자에게 양도코자 함
☎ : 531-1067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가격 $59,900, 주매상 $5,600, 렌트 $1,100
리스4년+5년 옵션가능함 ☎ : 1-579-4507(WHITBY)

교통이 편리한곳에 위치한 주택매매및 전세 :
Lakeshore & Royal York Rd.근처 Central Aircon., 4 Rms, Rec. Rm. ☎ : 255-6849, 368-9018

버라이어티 스토아를 SET UP하실분
렌트 $350, 리스6년+6년 옵션
☎ : 461-9236 JACK PONG

포터블 켄·모어 세탁기 2년 사용
포터블 뷰막 드라이어 6개월 사용
☎ : 497-9180

그로서리 및 야채가게 매매 :
주매상 $7,000~$8,000(5일영업)
리스 4½년+5년 옵션, 렌트 $1,200(2500sq. 피트)
자본이 있고 경험있으면 더 높은 이윤및 매상가능
☎ : 368-1917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
1801 LAWRENCE AVE. E.
SCARB.

고급 BEDROOM SET급매 :
경대, 옷장, 2 NIGHT테블(QUEEN SIZE) 침대,
G. E. 냉장고, 커텐, 전축등 급매
☎ : 769-4366(오후5시이후)

CONVENIANCE STORE IN BUSY PLAZA
(ST. CLAIR E. X 버치마운트)
ASKING $69,000, 리스8년6개월, 주매상 6,500이상
HELLENIC REALTY
☎ : 766-2020

그로서리가게및 건물급매 :
2층 벽돌건물이며 경쟁이 없고 장래성이 많은
좋은 위치에 있음.
모게지 1st. 9.5%, 2nd 12.5%
458 CALEDONIA RD. ☎ : 781-7080

HAMBURGER PLACE FOR SALE
중심가에 위치, 긴 기간의 리스 완전 장비된
큰 주차장이 있음, 주매상 $6,500
☎ : 741-9170 MRS. WOO A. E. LEPAGE

콘도미니엄 매매
2 베드룸+큰 리빙룸및 부엌 $57,000(협의가능)
냉장고, 스토브, 디쉬워셔.
HWY 427×RATHBURN 오후6시이후
☎ : 622-7162 미스타 리

그로서리 스토아 급매 : 몬트리올 100% 영어지역
BEER, WINE, CIDER, 유럽피안, 캐네디안 그로서리
취급 주매상 $3700, 주6½일 OPEN, 렌트 $375,
12년(리스+옵션), ASKING $29500+스탁
연락처 : 1-514-484-2071(몬트리올)
530-1012(토론토)

아파트단지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4000, 리스 5년
☎ : 921-0034, 783-6464(오전10시~오후6시)

성업중인 하드웨어
스토아 급매
하드웨어 비즈네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에게는 절호의 기회임, 좋은 장소
좋은 장래성, 좋은 가격임.
전화 : 741-4520
CALL JOE

여권 분실

"여권분실"
교포 여권 분실을 공고합니다.
성명 : 나 복 희 연락처 : 698-6415

식 당

大 生 園
짬뽕, 각종만두, 두부탕, 닭튀김, 왕새우 볶음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볶음밥, SEA FOOD.
월~목 11 : 30AM~1 : 00AM, 화 : CLOSE
금, 토 10 : 30AM~2 : 00AM, 일 2 : 00PM~12 : 00PM
☎ : 929-5048, 961-3539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김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환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꽃꽂이, 생일,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21-0560 여 정 웅

미 용

킴스미용실
(B) 532-7094, (R) 246-2437 (코리아하우스 뒤)

스타미용실 미세스·김
남녀 커트, 파마 전문, 9 AM~8 PM 木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시설및 수리

L. N. ELECTRIC MOTORS LTD.
각종 전기 모터 수리및 신 중고품판매(40여년의 연륜)
☎ : (B) 661-5667, (R) 742-9450 MR. 김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KIMBO ELECTRICAL CO.
ELECTRICAL CONTRACTOR
METRO LICENSE E-725
RESIDENTIAL, COMMERCIAL, INDUSTRIAL
TEL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검 부 원

자동차수리

자동차 수리 일체 :
20 ROGERS RD.
☎ : 651-9324(B), 226-5430(R) 변 달 원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이인식)

악기점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음대 졸)
☎ : 781-0200

피아노 :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인 쇄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 : 746-0675 박 종 남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한 방 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카펫·카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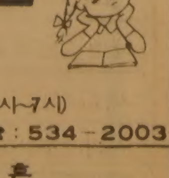
카펫 크리닝 •카펫 •소파 •체어 •타일 •하드우드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439-6277 박 (스트리핑 & 왁스).

기 타

병원 감독자가 될 수 있는 코스를 택하고 싶으신분
시간당 $7, 일주일 코스
☎ : 961-1057

PICTURE FRAME WAREHOUSES
각종액자, 오일페인팅(유화)판매 조 혜 숙
32A Rexdale Blvd. Tel.746-2120

새한칼라 현상소
630 BLOOR ST. W. TORONTO ☎535-7772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진 환영 ●현상, 인화, 확대

코스모스

숙녀복(SIZE 5-16)
아동복(신생아-16)
항상 저렴한 가격
월~토(오전10시~7시) 일(오후3시~7시)
706 BLOOR ST. W. ☎ : 534-2003

구 혼
26세로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건강한
남자로 알뜰한 신부를 찾고 있읍니다.
☎ : 1-387-2327 미스타 김

실협뉴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뒷 배경—초록색
윗부분 Mapleleaf—적색
아랫부분 메플리프—청색
O.K.B.A.의 상징과 리본부분—백색
LOGO의 타이틀—흑색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N.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회원들의 의견 구함

※위의 두가지 LOGO(로고) 중 어느 것이 더 좋겠읍니까?

지난 6월26일자로 기보한바 있는 본협회 로고(LOGO)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이 들어오고 있다 그중에도 교민 광고업계는지대한관심을 표해오고 있는데 바우종합광고(TP·Advertising Group)에서 직접 제작한 샘플을 게재하여회원들의 의견을 다시 구해본다.

7월31일 소집될 제3차정기이사회에서 정식으로 채택이 결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로고제정에 대해서많은 관심과 의견을 보내 주시면 좋겠다.

실업인협회
20MOBILE DR
TOR. M4A 1H9
☎ 752−7771

회 장 : 이 형 인
부 회 장 : 임 철 휜
〃 : 김 영 정
이 사 장 : 김 태 진
부이사장 : 전 윤 식

제1회 실협친선골프대회 안내

제1회 한인실업인 협회 친선골프대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후원을 바라는 준비위원회는 대회에대한 자세한 안내를 다시 발표하고 있다.

이번 골프토나멘트는 협회가 최초로 시도하는 대외행사로서 진행에 차질이 없기위해 회원부와 비회원부로 나누어 시상한다.

회원부는 본 협회에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을 뜻하니 회비납부에 대해서는 협회 사무실에 확인하기바라며, 혹시 친지와함께 조편성을 원하는이는 가능한대로 어렌지할 것이나, 교포중진인사나 외부 초청인사의 조편성이 여의치 못할때는 다소 조절이 있게 될 것이다.

참가를 원하시는이는 미리 전화예약을 바라며, 당일 현장에서의 등록은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사절한다고 한다. 참가비는 $30로 디너가 포함된 것이다.

당일 도어프라이스를 위해 각처에서 상품이 기증되고있으니 많은 회원이 참가하여 대회를 빛내주기를 거듭부탁 드린다.

정기이사회 소집공고

회칙 제15조1항에 의거 81년도 제3차 정기이사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 공고합니다.

— 아 래 —

일 시 : 1981년7월31일(금) 하오7시
장 소 : 84 Denbigh Cres. Downsview, Ont.
Tel. 633−4962
안 건 : 1. 업무및 재정보고
2. 각분과위원회 활동보고
3. 사무장 인준의 건
4. 기 타

1981년7월18일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이사장 김태진

※회의장소안내 : Keele St.와 Wilson Ave.에서 북쪽방향으로 4번째 시그날에서 좌회전하며, 100m 가량 가면 스톱싸인, 다시 우회전하여 50m 지점 스톱싸인에서 전면 소나무 있는 주택.

〈법률코너〉

임대계약 (속)

변호사 강 찬 영

1 변호사의 조언

스토어를 사는데 제일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점포의 임대계약 내용이다.

임대계약은 변호사와 먼저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매매계약에 서명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파는사람은 당연히 사는사람에게 보여주는것이 상식화 되어있고, 이 계약은 스토어에 대한 권리금의 거의 전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권리이므로 반드시 변호사의조언을 받아야 한다.

2 ·종류

스토어에 대한 임대계약은 대체로 세가지 종류로 구분할수 있다.

상업임대계약(Commercial Lease), 양식에 의해 만들어진 임대계약, 집과가게 임대계약(House&Store Lease) 양식을 사용해 만들어진 임대계약, 그리고 변호사가 자체내의 양식을 이용하여 만든 임대계약이있다.

3 ·조심해야 할 사항

임대계약 조건중에 내포된 내용중 가장 중요하게 검토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가) 점포사용목적조항

대개의 임대계약은 스토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수 있다고 제한하는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현재 스토어를 파는 사람의 업종이외의 다른사업을 하려면 이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파는 사람이 건물주에게서 사는 사람의 업종에 사용해도좋다는 허락을 받아주는것을 전제로 계약이 맺어져야한다.

(나) 임대기한 갱신권(Option to Renew)

임대기한이 만료되면 대개의 임대계약은 갱신권을 임대자에게 주는것이 보통이다.

대체로 두가지 종류의장단점이 있는데,그 하나는 임대자와 건물주의 합의에 따라 갱신되는 기간동안의 집세를 정한다는 갱신권이며, 또 하나는 서로합의하에 세를 정하게 되지만 합의가 안될때는 조정(Arbitration)에 의해 집세를 정한다는 것이다.

첫번째와 비슷하지만 약간 변형된 것으로 자주 보여지는 것중 갱신할 당시의 공정시세에 의해 서로 합의하에 정하기로 한다는 갱신권도 있다.

단순히 합의하에 한다는 것은 임대자(Tenant) 에게 별로 도움이되지 않는다고 보겠다. 집주인이 부당하게 많은금액을 요구할때는 합의가 되지않기 때문이다.

당시 시세에따라 합의하에 정한다는 조항은 첫번째의 갱신권 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지만 당시의 시세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데 많은 분규가 일어날수 있으므로 역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임대자에게 가장 좋다고 할수있는 갱신권은 합의가 안될때 조정자에 의해 집세를 정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물론 시간과 경비가 꽤 들어갈수 있지만 많은 경우 조정할수 있다는 정신적 부담때문에 당사자들이 합의하게 되는것이 보통이며, 정작 조정 신청을 하게되면 자신들이 선택한 사람들에 의해 서로가 책임을 져야하는 어떤 결정에 달하기 때문에 별로불만이 있을수 없다고 보겠다.

중재조정신청(Arbitration)이란 당사자들이 각각 한사람씩 자신의 대표를정하고 정해진 두사람의 대표에 의해 재삼의 대표자가 정해져, 세명의 대표가 집세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조정신청에 대한 비용은반반씩 부담하는것이 보통이다.

(다) 철거(Demolition), 판매(Sale), 수용(Expropriation)조항

어떤 임대계약,특히 상업임대계약 양식에는 집주인이 건물의 철거를 원하거나 빌딩을 팔때, 또는정부가 건물을수용(収用=차압)할때 특정기간의 통고를 임대자에게 알림으로그 계약을 끝내버릴수 있다.

(라) 건물파손조항

건물이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파손 되었을때 대개의 임대계약은 120일의 기간을 표준으로하여 만일 그 기간내에 건물이 복구될 경우에는 그 계약이 계속되지만 그 기간내에 건물복구가 불가능할때에는 집 주인의 재량(임대자의 재량이 아님)에 따라 임대계약을 끝내버릴수있다고 명시한다.

120일 이내에 복구될수 있다고 집주인이 판단했을때 만일 부분적으로 가게를 사용할수 있으면 집세는 부분적으로 내게된다.

(마) 임대계약 양도조항

대개의 임대계약은 집주인의 허락을받아 양도시킬수 있는데, 가끔 어떤 임대계약은 집주인이 무작정한 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에대한 허락을 거절할수 있도록 되어있다. 양도 조항은 스토어를 하다가 중도에 판매할수있는 중요한 조항이므로 집주인이 부당하게 양도에 대한 허락을 거절할수 없게끔하여야 하겠다.

일단 집주인이 부당하게 양도에 대한 허락을 거절하지 못하게 되어있으면새로 가게를 사는사람이 경제적으로 집세를 낼수있는 능력이 있고, 또 하려는사업이 건물에 위험을주는것이 아닌이상 집주인은 허락을 해야한다. (계속)

소독약 살포 안내

소독약 스프레이에 대한 회원들의 문의전화가 쇄도하여 몇가지 문제점에대한 해명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안내한다.

그동안 협회는 페스코(Pesfco)사와 협약을 맺고 회원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해 온바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은 K·B·A회원들에게는 한달에 한번씩 스프레이 써비스를 해주기로 되어 있으며, 1회당$9씩(비회원은 $15) 징수하게 되며, 그 살포범위는스토어의 전 실내와 지하실 그리고 부엌과 변소를 포함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몇번 소독약 써비스를 받아보니눈에 보이는 벌레도없어 헛돈 버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매달 써비스하는 계약을 파기해 버리는데 있다.

그러다가 몇 개월 후 벌레가 눈에 보이게되면 다시 전화로 써비스 호출을 한다.

또 다른 경우는, 계약된 범위 이외의 구역(예:2층이나 3층)에 살포해 주기를 요구하여 써비스를 받은후 추가된 요금의 청구를 거부하는때도 있다고한다. 이러할 때에 시비가일게되어, 계약회사측을 당황하게 하고, 협회로 항의전화가 오게된다.

회사의 책임자는 회원들에게 1년계약을 강요한바 없다고 해명하면서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싶다고 밝히고 있다.

협회는 Pesfco와 맺은계약대로 매달 1회씩 써비스를 받기를 권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다보면 스토어를 위생적으로 유지하는 보다 큰 이득이 있을것으로 본다.

회사측 에서는 [illegible] 본회원들에게 파격적 봉사료를 유지할 것이므로 오해나 낭설을 피해주기를 요망하며, 더 자세한 것은전화 881−5900 Mr. Michel (수퍼바이저)나협회로 연락을 요망한다.

대한체육회 사무실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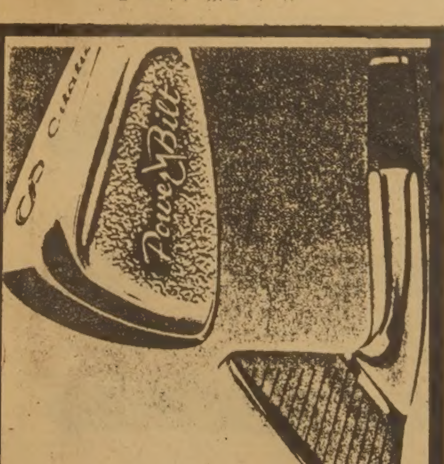
대한체육회 캐나다 지부는 20일 사무실을 637A 블루어·스트릿 빅·세븐·스튜디오내에 개설했다. 전화는 537−0745, 533−8421.

체육회 사무실 개설을축하, 바우종합 광고사는 간판을, 김종조종합보험은 책상과 의자, 황재필씨는 에어·콘, 서울여행사는 1,500달러를 회사했다고 체육회측은 밝혔다.

캐나다과일 금지
서울 김포공항서

(서울22일=연합)서울김포공항 당국은 21일부터캐나다등 8개국에서 들어오는 사과, 배, 복숭아, 자두, 호두및 묘목은 통관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한국과일을 외국 전염병으로부터 막기위한 조처이다.



제1회 한인실업인 협회 친선골프대회

장 소 : Castlemore Country Club
시 일 : 1981년8월3일 10시
참가자격 : 교민및 회원
참가인원 : 약110명 100
참 가 비 : 30달러(저녁식사 포함)
접 수 처 : 본협회 사무실(752−7771)
준비위원 : 이형인(224−1907)
김태진(249−3740)
차선겸(925−0339)
조정대(282−5632)
배경락(755−7635)

시상(회원)

- Gross Champion(Annual)
- Gross(1등에서 5등)
- Net A조(89이하)−1, 2, 3등
  B조(99이하)−1, 2, 3등
  C조(100이상)−1, 2, 3등
- Honest Golfer
- Nearest Hole라스베가스 여행권및 숙식1매
- Longest driver
- Hole in one(서울여행사 제공, 세계일주 여행권)

시상(비회원)

- Gross Champion(Annual)
- Gross(1등에서 5등)
- Net A조(99이하)−1, 2, 3등
  B조(100이상)−1, 2, 3등
- Nearest Hole라스베가스 여행권및 숙식 1매
- Longest driver
- Hole in one(서울여행사 제공 세계일주 여행권)

경 품

- 1등에서 10등까지

※경품내용및 기증자 명단은 추후발표

※기타 각 도매상및 제조업체에서 보내온 많은 상품이 있아오니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초보자도 환영)

주최 :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회원 문예작품 공모

본 협회에서는 1981년도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회원여러분의 문예작품을 모집하여 우수작을 시상코자 하오니 많이 응모해 주심을 바랍니다.

— 아 래 —

응모마감 : 1981년 7월30일
작 품 : 수기, 시, 수필, 콩트등 원고제한 없음.
심사위원 : 추후 발표함
시 상 : 1등 상패및 부상($500현금)
2 〃 〃 ($200현금)
3 〃 〃 ($100현금)
원고제출처 : O.K.B.A.
20 MOBILE DR. TOR. ONT. M4A 1H9
(원고 반환없음)

온타리오 한인실업인 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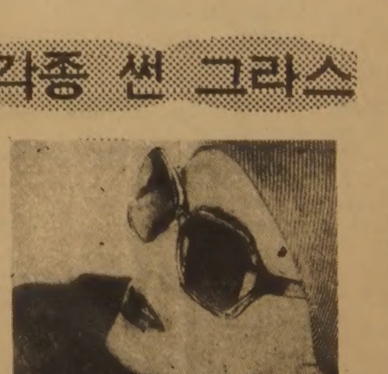
협회고문 변호사

온타리오주 상법 권위자

CATZMAN & WAHL
BARRISTER & SOLICITORS

133 RICHMOND ST. W.
(University와 Osgoode)
자세한 문의 : 362−1623
MISS 박이나
MR. LEVINE을 찾으세요.

각종 썬 그라스



•대폭적인 할인

썬그라스계의
권위공급회사

CAMELOT IMPORTS LTD.
250 Wildcat Rd., Downsview, Ont.
전화 663− 2972 Mr. Smith